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陶淵明 「閑情賦」 해석 비교
- 葉嘉瑩과 袁行霈의 연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성 식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汪 翠

2021 年 8 月

【국문초록】

도연명은 자연을 사랑한 은둔시인(隱遁詩人)이며, 군자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그를 “고금은일시인지종(古今隱匿詩人之宗)”으로 말하며, 후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에 대한 연구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도연명의 시와 사상에 관한 것이지만 그중 소재나 형식, 언어 등 여러 방면에서 볼 때 그의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도연명의 작품 중 유일하게 사랑을 주제로 한 것으로 매우 특별하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그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유독 논란이 되고 있고,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은둔시인이자 군자(君子)로서의 도연명에게 사랑의 주제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 특별한 작품은 바로 「한정부(閑情賦)」이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성행했던 문체인 부(賦)로 쓰여진 「한정부」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한정부」를 도연명의 사랑에 대한 추구로 ‘애정부(愛情賦)’로 보는 관점과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이상의 추구를 사랑이라는 비유로 나타낸 ‘비흥부(比興賦)’로 보는 관점이 있다. 즉, 「한정부」에 대한 평가는 “愛情說”과 “比興說” 두 가지로 나뉜다.

“愛情說”을 주장하는 소통(蕭統)은 도연명보다 40년 후 시대인 위진남북조 시대 남조(南朝) 양(梁)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로 『문선(文選)』을 편찬했고,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다. 그는 『도연명집서(陶淵明集序)』에서 도연명의 덕을 높이 흠모하여 이 책을 편집했지만, 「한정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주장을 채택하였다. 심지어 소통은 「한정부」에 대해서 ‘도연명의 많은 우수한 작품 가운데 흠집’이라 평가했다. 반면 “比興說”을 주장한 송(宋)대의 대문호 소식(蘇軾)은 소통의 이러한 평가를 ‘어린아이의 억지 이해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후대의 큰 영향을 끼친 두 문학가가 같은 작품에 대해 이렇게 상이한 평가를 내린 것이 필자로 하여금 「한정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사실 「한정부」에 대해서 고대인들만 연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대의 고전연구 학자인 엽가영(葉嘉瑩)과 원행패(袁行霈) 등도 「한정부」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엽가영은 ‘도연명이 「한정부」를 창작함으로 인해 비로소 온전한 인격을 완성하였다’라고 말하며, 원행패는 ‘비록 전대미문의 것은 아니지만 역시 절세의佳作’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 역시 「한정부」에 대한 연구가 현대인으

로 하여금 도연명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도연명의 다른 면들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기에, 「한정부」는 오늘날의 고전 문학 연구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정부」에 대한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순박하고 자연 귀화적인 도연명의 시와 담박하며 은일(隱逸)한 그의 사상 외에 도연명 자신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그의 인간성을 주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본고가 「한정부」에 대해 엽가영과 원행패, 두 명의 고대 문학자들의 연구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아래와 같다. 엽가영과 원행패는 중국 고대문학 연구 영역의 선구자로서 각각 고전문학 연구의 두 방향을 대표한다. 엽가영은 서양 문학 비평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학술 연구 영역이 광범위하고 고전 시사(詩詞) 비평 방면에서 매우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시 비평은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시각이 어우러져, 시사의 감상과 평가(詩詞評賞)가 세밀하고 독특하며, 단순 감상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인 평가가 뛰어나다. 엽가영은 자신의 고전 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서양 이론의 ‘遺貌取神(형태는 버리고 정신은 취한다)’을 적절하게 결합하였다. 엽가영은 전통적인 문학 이론 비평 방식이나 서양의 신구 문학 비평 이론이든 자신이 필요한 것을 택한 후 다시 응용하였다. 엽가영은 ‘중서화통(中西化通)’이라는 비평 방법을 채택하여 그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이념인 “흥발감동(興發感動)”을 제시하였다. 엽가영의 “흥발감동”의 문학이념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전 문학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이해하기 쉬운 현대의 구어체로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흥발감동”의 이론은 현대인의 고전 문학 연구에서 많은 문학적 융합을 일으켰다. 원행패는 학술 저서가 매우 풍부하고, 중국 고전 시사에 대한 연구가 독특하고 심오하며, 여러 학문이 교차하는 융합된 이념과 방법을 중시하여 자신의 독특한 문학이념인 “횡통과 종통(橫通與縱通)”을 제시하였다. 원행패의 「한정부」에 대한 연구 역시 도연명의 많은 연구 중에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현대인들 하여금 도연명이 문학예술에 조예가 있을 뿐 아니라 도연명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는 “興發感動”과 “橫通與縱通”의 문학적 이념을 통해 향후 고전 문학 연구에 있어서 시대에 대한 분석과 작품 자체의 “感發”의 힘을 통해 작품과 저자를 더 깊이 있게 볼 것을 제안한다. “興發感動”과 “橫通與縱通”을 결합은 고전 문학 해석에 ‘作者-作品-讀者’의 패턴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저자는 독자에게 감성과 지성을 전달하고, 독자 자신의 생명歷程에 응용함으로써 고전이 진정 인간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선행연구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II. 「閑情賦」의 해석	7
III. 陶淵明 「閑情賦」에 대한 평가	13
1. 부정적인 평가	13
2. 긍정적인 평가	17
3. 기타 평가	20
IV. 葉嘉瑩, 袁行霈의 연구 특성	22
1. 葉嘉瑩의 詩詞 연구	22
2. 袁行霈의 文學史 연구	26
V. 葉嘉瑩 「閑情賦」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	30
1. “興發感動”의 문학 이념	30
2. 「閑情賦」 해석에 대한 고찰	33
1) 권고부	40
2) 작품 평가의 패쇄성	42
VI. 袁行霈 「閑情賦」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	46
1. “橫通與縱通”의 문학 이념	46
2. 「閑情賦」 해석에 대한 고찰	48
1) 모방부	53
2) 작품 평가의 개방성	55
VII. 결 론	58
参考文献	61
中文摘要	64
[ABSTRACT]	66

I. 서론

1. 선행연구

陶淵明은 “고금의 은일 시인의 종사(古今隱逸詩人之宗)”¹⁾라 일컬어질 만큼 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금까지도 그와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鐘優民²⁾은 1985년 중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도연명 학술심포지엄(陶淵明學術研討會)에서 “도학(陶學)”³⁾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이념과 시각에서 도연명의 사상과 예술을 연구하면서 “도학”은 중국 고전 문학 연구 분야 분과로 발전했다.

도연명 「飲酒」詩에 대해 왕국유⁴⁾의 “무아지경(無我之境)⁵⁾”을 시작으로 100년간 도연명에 대한 연구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신세기 문화 건설에서 도연명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그중 하나는 도연명의 시(이하를 陶詩약칭함)에 대한 연구가 주로 ‘평담(平淡)’, ‘정묵(靜穆)’을 주된 풍격으로 간주하고, ‘호방(豪放)’한 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閑情賦」에 대한 연구가 다른 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1) 鐘嶸 著, 曹旭 集註, 『詩品集註』, 上海古籍出版社, 1994, p.268.

2) 鐘優民, 중국 고전 문학 연구자로, 주요 연구 방향은 육조(六朝), 도학(陶學), 중고 문학(中古文學), 문학사(文學史) 등입니다. 대표작품으로는 『陶淵明論集』, 『陶淵明傳』, 『歷代陶學研究概述』, 『陶學史話』, 『陶學發展史』, 『陶淵明研究資料新編』, 『曹植新探』, 『曹子建傳』, 『謝靈運論稿』, 『社會詩人鮑照』, 『望鄉詩人庾信』, 『中國詩歌史(魏晉南北朝卷)』, 『中華詩歌精粹(六朝卷·明代卷)』, 『文學史方法論』, 『新時期學術思潮(文藝卷)』, 『新樂府詩派研究』 등이 있다.

3) 鐘優民, 「世紀回眸, 陶壇百年」, 社會科學戰線, 2001.

“何謂陶學? 乃關於陶淵明及其詩文的閱讀, 鑒賞與評估的研究之學。” (“陶學”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연명과 그 시문의 읽기, 감상, 평가에 관한 연구 학문입니다.)

4) 왕국유(字는 靜安, 號는 觀堂, 1877~1927)는 浙江省 海寧 사람으로 청 말 민국 초기의 저명한 학자이다. 초기에는 서유럽의 유심주의 철학에 몰두하였고, 나중에는 청대 고증학 관계 저작을 탐독하였다. 그는 서유럽 부르주아계급 철학의 성과를 흡수하고 중국 經史 관계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총결하였을 뿐더러 그 위에 본인의 학문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탐구열을 가미하여 문학과 사학의 여러 영역에 걸쳐 탁월한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중국 고전 문학기론과 서유럽의 미학을 접목시켜 일찍이 아무도 언급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였고, 前人未踏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전통적인 시문평론 방면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후대 부르주아계급 학자들이 소개한 몇몇 유심주의적인 문예이론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그의 학설에서 구체화되거나 소개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周勳初 지음, 중국학연구회 고대문학분과 옮김, 『중국문화비평사』, 이론과실천, 1992년, p.338-339.

5) 왕국유는 “경계”를 “유아의 경계(有我之境)”와 “무아의 경계(無我之境)”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주관적 시인”과 “객관적 시인”의 구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 같지만 기실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物”과 “我”의 관계에서 착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사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아의 경계가 있고, 무아의 경계가 있다. “눈물 흘리며 꽃에게 묻네만 꽃은 대답이 없고, 어지러이 붉은 꽃잎 휘날리며 그네를 지나 날아가네”, “홀로 객사에 머물며 봄의 한기를 감당할 수 있네만 두견새 울음에 석양이 저무네” 등은 유아의 경계이다.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미 아득히 남산을 바라보네”라든지 “한파가 출렁이고, 환 새들은 유유히 아래로 나네” 등은 무아의 경계이다. 유아의 경계는 자아의 입장에서 사물을 관조하기에 사물마다 자아의 색채를 띠게 된다. 무아의 경계는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을 관조하기에 어느 것이 자신인지 어느 것이 사물인지 알 수 없게 된다.

周勳初 지음, 중국학연구회 고대문학분과 옮김, 위의 책, p.346.

「한정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도연명’이라는 이름이 대표하는 순박하고 자연적이고 담박한 은일 사상과는 결이 다른, 인간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도연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도연명의 작품 세계를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한정부」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고전 문학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도연명 관련 연구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⁶⁾를 통해 검색하면 2,249건의 도연명 관련 도서 및 연구를 볼 수 있고, 그중에 사상 관련한 내용은 513건(22.8%), 시 1,037건(46.1%), 「한정부」에 관한 연구는 1건(0.04%)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 한국에서의 도연명 관련 연구는 도연명의 시와 사상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의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한정부」에 대한 연구는 이를 소개한 학술지 기재논문이 1편 있을 뿐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하겠다. 한국에서 관련 연구 내용을 보면, 도연명 시와 수용 양상, 도연명과 다른 시인과의 비교연구 중심이다.

「한정부」는 도연명이 창조한 화려한 부(賦)로서, 현재 관련된 학술 연구가 단지 최웅혁의 『도연명(陶淵明)의 「한정부(閑情賦)」고』⁷⁾ 한 편 있을 뿐이다. 「한정부」의 문학적 가치나 도연명에 관한 다양한 관념의 연구가 부족하다.

중국에서 도연명에 관한 연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다. 中國知网(CNKI)⁸⁾를 통해 검색하면 5,253건, 사상 관련 연구 362건(6.8%), 시 1014건(19.3%), 「한정부」 53건(1.0%)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도연명을 연구하는 학자가 계속 증가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학자는 예를 들면 袁行霈, 葉嘉瑩, 吳云, 鐘優民, 唐滿先, 龔斌, 王瑤, 廖仲安, 李文初, 李華, 徐聲陽, 陳忠, 魏正申, 王榕培, 趙治中, 鄧安生, 戴建業, 丁永忠, 李寅生, 梅大聖, 馬曉坤, 李劍鋒 등이다.

「한정부」 관련 연구 중 몇몇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李劍鋒의 『陶淵明「閑情賦」的歷代接受与闡釋』은 역대 학자들의 「한정부」에 대한 비판과 수용 여부를 분석했다. 李文初의 『陶淵明「閑情賦」的評價問題』는 「한정부」는 사상과 예술이 모두 비교적 복잡한 작품으로 반드시 후대에 많은 논쟁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李華는 『聊托物以幻化寓至情于奇想－「閑情賦」淺析』에서 「한정부」를 장편 서정시로 여기며, 도연명이

6) 2021년 6월 18일 검색함.

7) 최웅혁, 『도연명(陶淵明)의 「한정부(閑情賦)」고』, 中國學研究, 1985.

8) 2021년 6월 18일 검색함.

쓴 美人에 대한 애정과 그로 인한 복잡한 갈등 심정이라고 했다. 吳雲은 『陶淵明「閑情賦」散論』에서 「한정부」을 오랫동안 무시당해 온 가작이라고 여겼는데, 이전의 평론자들의 감별력과 심미적인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얻은 결론도 판이하게 달랐다고 말한다.

현대의 많은 문학가들 중 「한정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현대의 고전문학의 연구자인 엽가영(葉嘉瑩)⁹⁾과 원행패(袁行霈)¹⁰⁾의 견해가 돋보인다.

엽가영은 「한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이 賦를 썼기 때문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비로소 완벽해졌다
(就是因爲寫了這篇賦以後, 陶淵明的人才完整。)¹¹⁾

원행패는 「한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앞 시대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없을 훌륭한 작품이다.
(雖非空前亦乃絕後之佳作。)¹²⁾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한정부」 연구에서도 중국학자인 엽가영과 원행패의 연구를 통하여 「한정부」를 해석해 보려 한다.

현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선두주자인 엽가영과 원행패는 각각 중국 고전 연구의 두 방향을 대표한다. 먼저, 엽가영은 서양 문학 비평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고전 시사 비평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의 詩詞 비평은 현대적인 의식의 바탕 위에 전통적인 방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감상에서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며 그녀의 이론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는 고전 詩에 대한 깊은 통찰에, 서양 이론의 유머적 요소를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겉모습을 버리고 내면의 본질인 신격(神格)을 취하는 방법을 적절히 결합하였다. 즉, 문학 비평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학 이론 비평 방식과 서양의 新舊 문학 비평 이론을 융합하여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9) 葉嘉瑩, 호는 迦陵으로, 1924년 7월 북경의 한 서향세가(書香世家), 교육자, 중국의 고전 문학 연구 전문가로 태어나 고전 문학의 시어 방향을 전공하였다. (본고 p.22 참고)

10) 袁行霈, 자는 春樹로 1936년 4월 18일 산둥성 지난에서 출생하였으며, 저명한 고전 문학 전문가로, 연구 분야는 육조시(六朝詩), 당시(唐詩), 송사(宋詞), 문언 소설(文言小說) 등에 편중되어 있다. (본고 p.26 참고)

11) 葉嘉瑩, 『葉嘉瑩說陶淵明飲酒及擬古詩』, 中華書局, 2007, p.265.

12) 袁行霈, 『陶淵明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7, p.135.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흥발감동(興發感動)”¹³⁾說이다. “興發感動”은 그녀가 “중서화통(中西化通)”이라는 비평 태도에 기초하여 자신만의 학문적 이념으로 내세운 것으로, 그녀는 이 문학 이념으로 난해한 고전을 깊이 있게 해석하여 쉬운 현대 백화로 풀어냈다. 이 “興發感動”의 이론은 현대인의 고전 문학 연구에 매우 큰 융합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의 『葉嘉瑩說陶淵明飲酒及擬古詩』에서는 「한정부」에 대한 상세한 해설 중 한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의 논리가 “흥발감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나와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엽가영의 “興發感動” 이론을 통해 분석한 「한정부」에 대한 평론을 살펴보려 한다.

한편, 원행패는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량의 학술서를 저술한 학자로, 중국 고전 시가에 독특하고 섬세한 연구 태도를 보인다. 그는 시의 언어(詩歌語言), 의상(意象), 의경(意境) 및 시인의 성격(詩人風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를 분석하고, 전면적이면서도 체계적이어서 현대인들이 고전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하는 데 귀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행패는 학문의 영역을 확장시켜 여러 학문을 교차시키는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학문적 이념인 “횡통과 종통(橫通與縱通)”¹⁴⁾ 정립시킨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횡통(橫通)”은 여러 학과를 교차 연구하는 것이고, “종통(縱通)”은 연구 대상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의 “橫通與縱通(횡통과 종통)” 이론은 도연명 연구에 있어 큰 추진력을 발휘했다. 이 이념의 연구로 원행패는 도연명년보(陶淵明年譜)를 정리한 뒤 도연명을 하나의 중심점으로 삼아 도연명을 위진(魏晉)의 정치와 문학이 만나는 지점에 놓고 도연명의 문학적 조예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의 사상적 변천과 이상적 추구를 연구해 도연명의 면모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이론적 연구 방법을 마련했다. 원행패는 이 이념을 뒷받침하여 『도연명연구(陶淵明研究)』, 『도연명집전주(陶淵明集箋註)』 등의 저서를 펴냈다. 그 중에 『陶淵明的「閑情賦」與辭賦中的愛情閑情主題』 이 글에서 「한정부」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진행했다. 따라서 원행패의 「한정부」 연구를 통해 도연명의 문학·예술적 조예뿐만 아니라 詩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까지 살펴볼 수 있기에 본고에서 엽가영의 연구와 더불어 살펴보려 한다.

13) 본고 p.30 참고

14) 본고 p.46 참고.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도연명에 관한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정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역대 학자들의 「한정부」 연구를 보면 도연명의 작품은 “採菊東籬下，悠然見南山(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 따다가, 멀리 남쪽의 산을 보다)”¹⁵⁾의 담담함뿐 아니라 “待鳳鳥以致辭，恐他人之我先(봉황 기다려 편지를 드려볼까 주저하는데, 다른 사람 선수칠까봐 걱정되네)”¹⁶⁾의 열정도 있다. 「한정부」의 연구는 우리에게 도연명의 또 다른 면모를 일깨워준다.

도연명이 「한정부」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엽가영과 원행패의 평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엽가영과 원행패가 도연명의 「한정부」라는 작품에 대해 현저하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문학 이념에 따른 결과로써, 두 중국 고전 문학자들의 서로 다른 문학 이념이 도연명의 연구에 어떤 참고가 되었는지, 나아가 고전 문학의 연구에 어떤 새로운 방향이 제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엽가영은 원행패와 같은 중국 출신의 문학자로서 어릴 때부터 深厚한 家學의 영향으로 중국 전통문학 비평의 薰陶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학업 과정과 인생역정 등으로 인해 고전 연구의 방향이 달라졌는데, 이는 특히 자신의 문학 이념인 “興發感動”의 방법으로 연구한 「한정부」에 대한 관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데서 알 수 있다. 반면 중국 전통문학 비평의 영향을 받아온 원행패는 자신의 문학 이념인 “橫通與縱通”을 내세웠다. 이 두 가지 다른 문학 이념은 「한정부」 연구뿐 아니라 고전 문학 연구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공한다. 원행패의 “橫通與縱通”의 문학 이념은 도연명을 분석할 때, 도연명의 철학 사상, 문예 사상, 도연명이 처한 정치적, 문학적 배경, 그리고 도연명과 동시대의 작가, 후대 작가의 詩歌 예술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점으로부터 하나의 사실적인 도연명의 영상을 그려낸다. 이런 연구 방법에서 얻어낸 결론은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본고는 중국 고전 문학을 연구하는 두 명의 고전 문학자의 문학적, 이념적 관점에서 도연명의 「한정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본고는 「한정부」에 대한 엽가영과 원행패의 다른 관점을 비교 분석함과 아울러 두 사람의 문학 이념¹⁷⁾을 결합하여 고전 문학의 연구에 새

15) 차주환, 『도연명시』, 문이재, 2002, p.74.

16) 본고 p.8 참고.

17) 여기서 말하는 ‘문학 이념’이란 중국어로는 ‘治學理念’이다. ‘治學理念’은 학자들의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인문과 이공분야 모두에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문학연구이므로 문학이념으로 말하기로 하겠다.

로운 방향과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두 학자의 다른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한정부」의 현세적 의미를 정리하여, 도연명의 인간적인 면을 호소하고자 한다. 엽가영과 원행패의 문학적 관점을 결합하여 현대인의 고전 문학 분야 연구에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閑情賦」의 해석

「閑情賦」 18) 陶淵明

【並序】

初, 張衡作「定情賦」, 蔡邕作「靜情賦」, 檢逸辭而宗澹泊, 始則蕩以思慮, 而終歸閑正。將以抑流宕之邪心, 諒有助於諷諫。綴文之士, 奕代繼作。並固觸類, 廣其辭義。余園閭多暇, 復染翰爲之。雖文妙不足, 庶不謬作者之意乎?

처음 장형이 「정정부(定情賦)」를 지었고, 채옹은 「정정부(靜情賦)」를 지었다. 일탈한 언사를 검속하여 담백한 정서를 으뜸으로 삼았다. 시작인 경우 생각을 탕일(蕩逸)하게 펼치게 되면 끝내 올바름을 막는 데로 돌아가 버린다. 장차 이것으로써 유탕(流宕)한 사심(邪心)을 막아 진실로 풍간(諷諫)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짓는 선비들은 대대로 이어서 글을 지었는데, 모두 촉류(觸類)를 거듭하여 그 글의 뜻을 넓혀 온 것이다. 나 역시 전원생활에서 여가가 많은지라, 붓에 먹을 찍어 글을 지어 보았다. 비록 문장이 묘미가 풍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글 짓는 이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았으리.

夫何瓌逸之令姿, 獨曠世以秀羣。

얼마나 옥처럼 뛰어난 자태인가, 유독 넓은 세상 빼어난 이들 중 으뜸이네.

表傾城之艷色, 期有德於傳聞。

성을 기울일 만한 아름다움 드러내고, 덕행으로 세상에 알려질 기약 있네.

佩鳴玉以比絜, 齊幽蘭以爭芬。

울리는 옥 소리와 고결함을 견주고, 그윽한 난초와는 나란히 향기 다투네.

淡柔情於俗內, 負雅志於高雲。

세속의 부드러운 정에는 담담하고, 높은 구름의 고아한 뜻에 부심하네.

悲晨曦之易夕, 感人生之長勤。

새벽 햇살이 석양 됨을 슬퍼하면서, 삶의 긴 수고로움에 항상 감탄하네.

18) 참고 문헌:

袁行霈, 『陶淵明集箋注』, 中華書局, 2003, 第一版, p.448-459.

최웅혁, 『도연명의 「한정부」 고』, 中國學研究, 1985.

원행패 지음, 바종혁·김종석·정환중·장창호·박영순·박봉순·조휘만·이규일·진준화 옮김, 『도연명 연구』, 학교방, 2017, p.184-185.

葉嘉瑩, 『葉嘉瑩說陶淵明飲酒詩及擬古詩·陶淵明的「閑情賦」』, 中華書局, 2007, p.253-266.

同一盡於百年，何歡寡而愁殷。

누구나 한번 사는 일생 백년이면 다하는데, 어찌 기쁨은 적고 근심은 이리 많은가?

褰朱幃而正坐，汎清瑟以自欣。

붉은 휘장 걷어 올리고 바로 앉아, 가볍고 맑은 거문고 소리로 스스로 달래볼 뿐.

送纖指之餘好，攘皓袖之繽紛。

섬섬옥수로 튕겨 보내는 여운이 좋고, 밀리는 흰 소매는 어지럽게 분분하구나.

瞬美目以流眇，含言笑而不分。

아름다운 눈 깜박이며 흐르듯 걸눈질하고, 말과 웃음 머금고 나누지 않는다네.

曲調將半，景落西軒。

곡조를 반쯤 타니, 햇살은 서쪽 처마로 떨어지고

悲商叩林，白雲依山。

서풍이 숲을 울리는 소리에 슬퍼지는데, 흰 구름 산에 걸렸구나.

仰睇天路，俯促鳴絃。

눈 들어 하늘 보다가, 머리 숙여 거문고 줄 급히 튕겨보네.

神儀嫵媚，舉止詳妍。

신비로운 자태는 아리답게 예쁘고, 행동거지는 세세히 곱기도 해라.

激清音以感余，願接膝以交言。

맑은 소리가 격해지면서 나를 감동시키니, 무릎 맞대고 말이라도 나눠봤으면.

欲自往以結誓，懼冒禮之爲僞。

달려가 사랑의 맹세를 맺고자 하나, 예의에 벗어난다고 탓할까봐 두렵구나.

待鳳鳥以致辭，恐他人之我先。

봉황 기다려 편지를 드려볼까 (주저하는데), 다른 사람 선수칠까봐 걱정되네.

意惶惑而靡寧，魂須臾而九遷。

마음은 황급하고 미혹되어 편하지 못하는데, 혼은 잠깐 새 아홉 번이나 오락가락하네.

願在衣而爲領，承華首之餘芳；

원컨대 내가 옷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옷깃이 되어, 고운 머리카락의 남은 향기 맡아
보고 싶건만,

悲羅襟之宵離，怨秋夜之未央。

슬프다! 밤이 되면 벗어버릴 비단 옷깃, 아직도 많이 남은 가을밤을 원망할까봐.

願在裳而爲帶，束窈窕之纖身；

원컨대 내가 치마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허리끈 되어, 그대의 아름다운 가는 몸을 묶어
보고 싶건만,

嗟溫涼之異氣，或脫故而服新。

안타깝구나! 따뜻하고 추운 계절 바뀔 때마다, 혹 옛 옷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 버릴
까봐.

願在髮而爲澤，刷玄鬢於頰肩；

원컨대 내가 머리카락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머릿기름 되어, 어깨까지 늘어진 검은 머
리 빗겨 주고 싶건만,

悲佳人之屢沐，從白水以枯煎。

슬프다! 아름다운 이는 머리 자주 감는지라, 맑은 물로 씻어내 버릴까 가슴 졸이며 애태
울까봐.

願在眉而爲黛，隨瞻視以閑揚；

원컨대 내가 눈썹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눈썹먹이 되어, 그대의 눈길 따라 아름답게
드날리고 싶건만,

悲脂粉之尙鮮，或取毀於華粧。

슬프다! 연지와 분을 더 아름답다고 여겨, 혹 화장하며 지워져 버릴까봐.

願在莞而爲席，安弱體於三秋；

원컨대 내가 왕골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자리 되어, 가을 석 달 그대 약한 몸 편히 해
주고 싶건만,

悲文茵之代御，方經年而見求。

슬프다! 수놓은 자리가 대신 차지하여, 한 해 지나서야 마야흐로 날 찾을까봐.

願在絲而爲履，附素足以周旋；

원컨대 내가 실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신발이 되어, 그대의 흰 발에 붙어 다니고 싶건만,
悲行止之有節，空委棄於床前。

슬프다! 행동거지에 절도가 있어서, 헛되이 침상 앞에 버려질까봐.

願在畫而爲影，常依形而西東；

원컨대 내가 낮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그림자 되어, 항상 그대의 형상 따라 서쪽 동쪽
드리우고 싶건만,

悲高樹之多蔭，概有時而不同。

슬프다! 높은 나무 그늘에 가려, 때때로 그대 따르지 못할까봐.

願在夜而爲燭, 照玉容於兩楹;

원컨대 내가 밤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 위해 촛불 되어, 기둥 옆에서 옥 같은 얼굴 비춰주고 싶건만,

悲扶桑之舒光, 奄滅景而藏明。

슬프다! 부상(扶桑)의 해가 서서히 떠올라 비추면, 갑자기 불 꺼져 밝음 사라질까봐.

願在竹而爲扇, 含淒飆於柔握;

원컨대 내가 대나무로 있게 된다면 그대 위해 부채 되어, 시원한 바람 품어 그대 부드러운 손에 잡혀 있고 싶건만,

悲白露之晨零, 願襟袖以緬邈。

슬프다! 흰 이슬 새벽에 내리기 시작하면, 아득하게 떨어져 그대 옷깃만 돌아보게 될까봐.

願在木而爲桐, 作膝上之鳴琴;

원컨대 내가 나무로 있게 된다면 그대 위해 오동나무가 되어, 그대 무릎에서 울리는 거문고가 되고 싶건만,

悲樂極以哀來, 終推我而輟音。

슬프다! 즐거움이 지극하면 슬픔이 오나니, 끝내 나를 밀쳐 내고 연주를 그치게 될까봐.

考所願而必違, 徒契契以苦心。

생각해 보면 내 바람은 어긋날 수밖에 없나니, 다만 근심하며 마음만 괴로울 뿐.

擁勞情而罔訴, 步容與於南林。

괴로운 마음 껴안고 호소할 곳 없어, 남쪽 숲에서 배회하며 걸어보네.

栖木蘭之遺露, 翳青松之餘陰。

이슬 내린 목란 나무 아래로 깃들여, 푸른 소나무 남긴 그늘로 몸을 숨기네.

儻行行之有覿, 交欣懼於中襟。

혹시 오가다가 볼 수 있을지 몰라, 설렘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엇갈리는구나.

竟寂寞而無見, 獨悵想以空尋。

끝내 적막하게 보이지 않으면, 홀로 안타까워 공상하며 헛되어 찾아 나서보네.

斂輕裾以復路, 瞻夕陽而流歎。

가벼운 옷자락 거두어 다시 돌아오는 길, 석양 바라보니 탄식하고 눈물 흘리네.

步徙倚以忘趣, 色淒慘而矜顏。

걸음을 옮겨 봐도 갈 곳을 잊었고, 처참한 안색에 괴로워하는 표정이네.

葉燮燮以去條, 氣淒淒而就寒。

나뭇잎은 우수수 가지에서 떨어지고, 날씨는 쌀쌀해지며 추운 계절로 가네.

日負影以偕沒, 月媚景於雲端。

해는 그림자 짝어지고 함께 사라지고, 달은 구름 가에서 고운 빛을 내는구나.

鳥淒聲以孤歸, 獸索偶而不還。

새는 슬피 울며 혼자서 돌아가는데, 짝을 찾는 짐승은 돌아가지 못하네.

悼當年之晚暮, 恨茲歲之欲殫。

좋은 시절 저물어가니 슬프고, 이 해 끝나 가려니 한스럽구나.

思宵夢以從之, 神飄飄而不安。

꿈속에서라도 그대 쫓아보려 생각하지만, 정신이 이리저리 떠돌아 편안하지 않네.

若憑舟之失棹, 譬緣崖而無攀。

마치 배에 올랐으나 노를 놓친 듯, 벼랑 오르면서 잡을 곳이 없는 것과 같구나.

于時畢昴盈軒, 北風淒淒。

이때에 필성과 묘성은 창밖에 가득하고, 북풍은 쌀쌀하기 그지없구나.

耿耿不寐, 衆念徘徊。

근심 속에 잠 못 이루고, 온갖 생각이 어지럽구나.

起攝帶以伺晨, 繁霜粲於素階。

일어나 옷 갖춰 입고 아침 기다리는데, 하얀 섬돌에는 깨끗한 서리만 내렸구나.

雞斂翅而未鳴, 笛流遠以清哀。

닭은 날개를 접은 채 아직 울지 않았는데, 멀리서 들리는 맑고 슬픈 피리 소리여.

始妙密以閑和, 終寥亮而藏摧。

처음에는 妙密하여 조화롭지 못하더니, 끝날 때는 寥亮하여 근심을 감추는구나.

意夫人之在茲, 託行雲以送懷。

그 사람 여기 있다 생각해, 가는 구름에 부탁하여 내 마음을 전해보리라.

行雲逝而無語, 時奄冉而就過。

흘러가는 구름은 가면서도 말이 없고, 시간도 시나브로 흘러 지나갈 뿐이로다.

徒勤思而自悲, 終阻山而滯河。

하지만 부지런히 생각해보니 스스로 슬퍼지네, 끝내 강과 산을 막아보려 했던 일.

迎清風以祛累, 寄弱誌於歸波。

맑은 바람 맞이하여 허물 없애고, 약한 마음 저 흘러가는 파도에 맡기리라.

尤蔓草之爲會，誦召南之餘歌。

『시경』 만초(蔓草)의 만남을 닮아며, 『시경』 소남(召南)의 나머지 곡을 읊조리네.
坦萬慮以存誠，憩遙情於八遐。

모든 염려 털어 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방팔방 떠돌던 내 심정 쉬게 하리라.

III. 陶淵明 「閑情賦」에 대한 평가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陶詩를 추앙했고, 도연명의 사상이나 시가에 대한 연구 또한 풍부하고 다양하다. 「한정부」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정부」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부정적 평가로서 “愛情說” 있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 평가인 “比興說”이 있다.¹⁹⁾ 이 두 가지 중요한 평가 외에도 “정치적 이상(政治理想說)”으로 보는 관점과 예의를 지킨다는 관점도 있다.

1. 부정적 평가

도연명의 문학적 가치는 상당 기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梁 昭明太子 蕭統이 도연명의 문집을 편찬하고, 후에 宋나라의 소식(蘇軾)이 지지를 받고, 비로소 그는 정식으로 1600여 년 중국 문단(文壇)에 올라설 수 있었다.

그의 여러 작품 중 「한정부」의 평가에 대해 “愛情說”의 관점을 가진 문인들은 「한정부」가 도연명의 위대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연명 문학의 오점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중국 문학 사상 최초로 도연명의 작품들을 칭찬한 소통은 『도연명 집·서(陶淵明集·序)』에서 이렇게 평가하였다.

나는 도연명의 글을 좋아하여 손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또한 그의 품덕을 앙모하며 같은 시대가 아님을 한스러워하였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수집하고 교정하여 대략 편목을 분류하였다. 백옥의 작은 흠이라면 유독 「한정부」 한 편이 그러했다. 양웅(揚雄)이 “백 가지를 권하면서 한 가지를 풍간한다(勸百諷一)”라고 말했는데, 「한정부」에는 끝내 풍간의 의미가 없으니, 어찌 붓끝을 눌러 써야했던 말인가? 안타깝도다! 쓰지 않는게 더 나았을 것을!

(余愛嗜其文，不能釋手；尙想其德，恨不同時。故更加搜求，粗爲區目。白璧微瑕者，惟在「閑情」一賦。楊雄所謂勸百諷一者，卒無諷諫，何必搖其筆端？惜哉，無是可也！)²⁰⁾

소통은 『문선』에서 詩賦를 내세우면서도 「한정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통은 도연명의 채주를 아끼면서도 유독 「한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

19) 龔斌, 같은 책, p.417.

20) 원행패 지음, 바종혁·김종석·정환중·장창호·박영순·박봉순·조휘만·이규일·진준화 옮김, 『도연명 연구』, 학교방, 2017, p.175.

통은 『소명문선』의 詩賦 분류에서 班固²¹⁾의 「兩都賦」, 張衡²²⁾의 「西京賦」, 司馬相如²³⁾의 「長門賦」, 曹植²⁴⁾의 「洛神賦」 등 56편의 賦文을 선별했다. 賦를 선별할 때 개인의 주관과 취향에 너무 얽매어 더 많은 우수한 賦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다. 특히 사랑을 주제로 하는 賦는 전혀 넣지 않았다.

원행패는 이렇게 말했다.

“백옥의 작은 흠”이라는 네 글자는 후대의 부 창작자들에게 꺼리는 말이 되었고, 본래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었던 “정”류의 부가 이로써 좌절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의 체제가 본래 애정을 서술하는 데 편리한 형식이 되길 바랬지만 더 이상 이런 방향 위에서 커다란 발전은 없었다.

(“白玉微瑕”四个字使后來的賦家有了顧忌，本來可以順利發展的“情”類的賦從此受到挫折，... 賦這種題材本來有希望成爲抒發愛情的方便的形式，却就沒有再在這個方向上有什么大的發展。)25)

후대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賦가 있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그 양과 질 등에 관해서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소통뿐만 아니라 청나라 학자 방동수(方東樹)²⁶⁾는 『소매침언(昭昧詹言)』에서도 「한정부」에 대한 이렇게 비평했다.

21) 반고(班固), 중국 후한 초기의 역사가·문학자(32~92). 자는 맹견(孟堅). 아버지 표(彪)의 유지를 받아 기전체 역사서인 《한서(漢書)》를 편집하였다. 작품에 「백호통의(白虎通義)」, 「양도부(兩都賦)」 따위가 있다. 「양도부(兩都賦)」는 「서도부(西都賦)」 「동도부(東都賦)」 두 편으로 나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2) 장형(張衡), 중국 후한(後漢)의 문인·과학자(78~139). 자는 평자(平子). 혼천의(渾天儀) 등을 만들었다. 부문(賦文)에도 뛰어나 작품에 「이경부(二京賦)」, 「귀전부(歸田賦)」가 있다. 「西京賦(서경부)」는 「이경부(二京賦)」의 한 편이고, 다른 한 편이 「동경부(東京賦)」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3) 사마상여(司馬相如), 중국 전한(前漢)의 문인(B.C.179?~B.C.117). 자는 장경(長卿). 그의 사부(辭賦)는 한(漢)·위(魏)·육조(六朝) 문인의 모범이 되었다. 작품에 「자허지부(子虛之賦)」 따위가 있다. 「장문부(長門賦)」는 남조 양·소통이 엮은 『소명문선』의 서문에 의하면, 이것은 한나라 문학자 사마상여가 한 무제(漢武帝)의 충애를 잃은 황후 진아교(陳阿嬌)의 백금중탁을 받아 지은 소채부라고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4) 조식(曹植), 조선 시대의 학자(1501~1572). 자는 건중(健仲/健中). 호는 남명(南冥). 여러 차례 벼슬이 내려졌으나 성리학 연구와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였다. 저서에 《남명집》·《남명학기》·《파한잡기(破閑雜記)》가 있고, 작품에 가사 「남명가」·「왕룡가」·「권선지로가」가 있으나 전하지 않으며, 《해동가요》와 《청구영언》에 시조 3수가 전한다. 「낙신부(洛神賦)」는 중국 삼국 시대에, 위(魏)나라의 조식이 지은 산문부(散文賦).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5) 원행패 지음, 같은 책, p.193-194.

26) 방동수(方東樹), 중국 청나라의 학자(1772~1851). 자는 식지(植之). 안휘성(安徽省) 출신이다. 대표적인 저서로 「의위헌문집(義衛軒文集)」, 「시집(詩集)」, 「소매침언(昭昧詹言)」 등이 전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옛 사람들이 이른바, 올바른 사람은 艷情詩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매우 옳되 하상(賀裳)²⁷⁾은 그릇되다 반박하였다. 예컨대 [군자] 도연명의 「한정부」는 지어지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지어져서] 후세 사람들로 이를 따라 경박하고 음란한 풍조를 만들어 후학들을 잘못 이끌었던 것이다.

(昔人所謂正人不宜作艷詩，此說甚正，賀裳駁之非也。如淵明「閑情賦」，可以不作。后世循之，直是輕薄淫褻，最誤子弟。) ²⁸⁾

이 관점은 소통과 일치한다. 이런 「한정부」에 대한 평가는 ‘문학작품 자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작가에 대한 평가’로 그 작품을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도연명이 ‘군자(君子)’여야 하고, 글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아름다운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도연명의 인품을 도연명의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문학작품은 시인의 감흥이지, 인품으로 작품의 우열을 가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점은 엽가영이 서양의 신 비평론(新批評)²⁹⁾을 반대하는 관점과 일치한다.

「한정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당대(當代)의 저명한 학자 중, 전종서(錢鐘書)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는 『관추편(管錐編)』³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명이 어찌 賦題의 의미를 알지 못했겠는가? 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작자의 宗旨가 작품의 효과는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그가 이른바 “끝내 풍간이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도연명이 스스로 ‘풍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 말로써, 양용의 말을 빌어온 것은 제목의 의미가 “閑情”이고 賦의 쓰임도 “閑情”을 면할 수 없으니 의도는 “풍간”하고자 하였으되 그 효과는 오히려 “권함”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방탕한 말은 자태의 고움을 다 묘사하려 하나 淡泊한 宗旨는 형태와 기세가 다하니, 간언은 의혹된 말을 대적하지 못하는 법, 이로써 방일함을 검속하여 바름으로 돌이키는 것은 마치 썩은 바늘로 여섯 말을 부리고, 오랜 질병을 환약 하나로 낫게 한다는 것과 같다. 司空圖³¹⁾는 「白菊」의 첫수에서 “도연명이 狂生임을 의심하지 말라, 賦를 지

27) 賀裳(約公元1681年前后在世), 字黃公, 号槩齋, 別号白鳳詞人, 江南丹陽人。生卒年均不詳, 約清圣祖康熙二十年前后在世。康熙初諸生。裳工于詞, 著有『紅牙詞』, 『皴水軒詞筌』一卷, 『載酒園詩話』五卷。卷一泛論古今人作詩理法, 多商榷前人詩話之說; 卷二論初盛唐人詩; 卷三論中唐人詩; 卷四論晚唐詩; 卷五論兩宋人詩。自唐始, 又略于初唐而詳于中晚。賀氏論詞, 強調真情本色, 亦重視環境之真實, 要盡可能做到“形神具似”。此書對歷代詞人詞作名篇多有評析, 對詞調, 聲律, 作法論述亦有精彩之處。

28) 方東樹, 『昭昧詹言·卷四·陶公』, 廣文書局印行。

29) 신비평, “1930년대에 일어나 1950년대까지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문예 비평 방법. 작품을 작가나 시대, 또는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보려는 태도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작품 그 자체만으로 분석할 것을 주장하면서, 특히 작품 본문에 밀착하여 작품에 쓰인 언어의 기능을 세세히 비평하려고 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30) 전종서(錢鐘書), 『관추편(管錐編)』, 蘭馨室書齋, 1978년, p.1220-1221.

31) 司空圖, 중국 당나라의 시인(837~908). 자는 표성(表聖). 고결한 시풍으로 유명하며, 후세의 시론에 크게

음에 「定情」이 있지 않은가!”라 하였는데, 平仄의 제한으로 “閑”을 “定”이라 하였으나 이는 宗旨를 아는 것이며, 이 賦가 있어 “狂生”의 “의심”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효과를 말한 것이니 그 설명이 아주 분명하다. 사실과 바람이 서로 어긋나고 뜻과 효과가 서로 위배되니 도연명의 이 작품이 그렇다.

(昭明何嘗不識賦題之意，唯識題意，故言作者之宗旨非即作品之成效。其謂“卒无‘諷諫’”，正對陶潛自稱‘有助諷諫’而發；其引揚雄語，正謂題之意爲“閑情”，而賦之用不免于“閑情”，旨欲“諷”而效反“勸”耳。流宕之詞，窮態極妍，澹泊之宗，形絀氣短，諍諫不敵搖惑；以此檢逸歸正，如朽索之馭六馬，弥年疾疢而銷以一丸也。司空圖『白菊』第一首：‘不疑陶令是狂生，作賦其如有『定情』！’囿于平仄，易“閑”爲“定”，是知宗旨也，以有此賦而无奈“狂生”之“疑”，是言成效也，分疏殊明。事愿相違，志功相背，潛斯作有焉。)32)

전종서는 ‘도연명이 賦를 창작하는 취지가 賦를 작성한 후의 객관적인 효과(賦之用)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바람이 서로 어긋나고 의도와 효과가 서로 위배되며 (事愿相違, 志功相背), 이것이야말로 도연명 작품에서 「한정부」는 치명적인 오점이라 할 수 있겠다’ 말한다. 이러한 전종서의 견해는 바로 소통이 『문선』에서 「한정부」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인 것이다.

영향을 미쳤다. 저서에 《사공표성문집(司空表聖文集)》, 《시집》, 《24시품(詩品)》 따위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32) 錢鐘書, 『관추편(管錐編)』, 蘭馨室書齋, 1978, p.1220-1221.

2. 긍정적 평가

“愛情說”의 입장에서 「한정부」에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지만 긍정적 관점인 “比興說” 또한 적지 않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宋나라 소식(蘇軾)이다. 소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도연명의 「한정부」는 이른바 『詩經·國風』의 “색을 좋아하되 음란하지 않은(好色而不淫)” 것과 유사하다. 설령 「周南」에 미치지 못하는 하더라도 굴원과 宋玉이 진술한 바와 무엇이 다른가? 그럼에도 소통은 이를 폄훼하였으니 이는 바로 어린아이의 억지 이해에 불과할 뿐이다.

(淵明「閑情賦」，正所謂「國風」“好色而不淫”。正使不及「周南」，與屈宋所陳何異？而統乃譏之，此乃小兒強作解事者。)33)

明나라 장자열(張自烈)34)은 “소통의 식견이 너무 짧아서 도연명 만분의 일도 엿보지 못하였으며(昭明識見淺陋，終未窺淵明萬一)”，“이 부에 담겨진 의미는 매우 깊고 도연명 부문의 시작과 끝을 결합해 생각하면 그 취지를 얻을 수 있다(此賦托寄深遠，合淵明首尾詩文思之，自得其旨)”35)고 말했다.

청나라 유광분(劉光蕡)36)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賦의 내용은 학인(學人)의 求道라고 해도 가하고, 임금께 충성하는 신하의 주군에 대한 연모라 해도 가하며, 설령 비참한 신세에 빠진 신하가 聖帝 明王을 그리는 것이라 해도 불가할 것이 없다.

(其所賦之辭以爲學人之求道也可，以爲忠君之戀主亦可，卽以爲自悲身以思聖帝明王也亦无可。)37)

33) 蘇軾, 『蘇東坡題跋·題文選』卷六七, 明刊七十五本卷本.

34) 張自烈, 명나라 강서(江西) 의춘(宜春) 사람. 자는 이공(爾公)이고, 호는 기산(芑山)이다. 박학하고 경학에 조예가 깊어 조정에서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고 여산(廬山)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했다. 동생 장자희(張自熙), 장자훈(張自勳)과 함께 학행으로 명성을 떨쳤다. 저서에 『四書大全辨』과 『古今文辯』, 『諸家辨』, 『正字通』이 있다.

35) 張自烈, 『箋注陶淵明集』卷五, 明崇禎刻本, 國家圖書館藏.

36) 劉光蕡, 1843년-1903년, 섬서(陝西) 함양(鹹陽) 천각촌(天閣村) 사람으로 자는 환당(煥唐)이고, 호는 고우(古愚)이다. 청(淸)나라 말기의 학자이자 교육가, 시인이다. 관중(關中) 출신의 대학자로 1897년에 숭실서원(崇實書院)을 창립하여 실학(實學)을 가르치고, 인재양성에 힘썼다. 또 정치적으로 변법(變法)을 지지했다. 저서로는 『입전억해(立政臆解)』, 『학기억해(學記臆解)』, 『대학고의(大學古義)』, 『효경본의(孝經本義)』, 『논어시습어(論語時習語)』, 『연하초당문집(煙霞草堂文集)』 등이 있다.

37) 劉光蕡, 『陶淵明詩文集評』, 台灣中華書局, 1974.

루쉰(魯迅)은 「한정부」에 대해 직접 긍정적 평가는 하지 않지만 아래 인용문에서 「한정부」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꺾어 들고, 멀리 남산을 바라본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구절로 도연명 선생은 후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은일의 시인이 된 지 매우 오래되었다. 그러나 전체 문집 속에서 그는 때때로 매우 모던하였으니……비록 나중에 “예의에 그침”으로 인해 끝까지 공격적이지는 못했지만, 그 기발하고 자유로운 자백은 결국 대단한 것이었다…… 결코 그가 하루 종일 표연히 떠다닌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被論客贊賞着“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的陶潛先生, 在后人的心目中, 實在飄逸得太久了。但在全集里, 他有時却很摩登……雖然後來自說因為“止于禮義”, 未能進攻到底, 但那些胡思亂想的自白, 究竟是大膽的……在証明着他并非整天的飄飄然。)38)

루쉰은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한 언어로 「한정부」를 ‘사랑을 묘사한 작품’으로 간주하여 학자들의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엽가영도 소통의 「한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반대하였다. 엽가영은 『소명문선』은 현존하는 최초의 문학 총집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한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소통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소명문선』에 「한정부」를 수록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도연명 작품에 대한 소통의 의견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그녀는 도연명이 「한정부」를 썼기 때문에 높고 높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고(高高在上), 세속을 벗어난 경지에 도달한 도연명이 대중에게 자신 또한 情欲이 있고 사랑을 동경하는 보통 사람으로서 “이 賦를 썼기 때문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비로소 완벽해졌다(就是寫了這一篇賦以後, 陶淵明的人才完整)”39)고 평가하였다.

도연명을 30여 년간 연구해 온 원행패 또한 「한정부」에 대해 “비록 앞 시대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없을 훌륭한 작품이다(雖非空前亦乃絕後之佳作)”40)라고 극찬하기까지 한다.

앞서 언급된 학자들의 「한정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연명의 문학작품 중 개인적

38) 魯迅, 「且介亭雜文二集·題未定·草(六)」, 『魯迅全集(第六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p.414-415.

39) 葉嘉瑩, 『葉嘉瑩說陶淵明飲酒詩與擬古詩』, 中華書局, 2007, p.265.

40) 袁行霽, 『陶淵明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7, p.135.

인 예술의 표현 형식에 있어서 「한정부」의 연구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한정부」가 도연명의 다른 작품과 어울려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지 않지만, 고상한 인격 추구하고 높은 도덕 기준을 나타내고, 위조남북조 문인들에게 권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작품임을 보여준다.

3. 기타 평가

「한정부」에 대한 위에 언급한 관점 외에 학술계(學術界)의 다른 평가들도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이상(政治理想說)”으로 보는 관점이다.⁴¹⁾

逯欽立⁴²⁾는 「한정부」를 정치적 이상으로 보는 대표 인물이다. 그는 『도연명집(陶淵明集)』에서 이 관점을 제기한다.

이 부는 도연명이 팽택령(彭澤令)으로 부임한 후, 사랑의 실패를 통하여 정치 이상의 환멸을 표현한 것이다.

(賦作于彭澤致仕以後，以追求愛情的失敗表達政治理想的幻滅。)⁴³⁾

李健은 『추구자의 고민-「한정부」의 사상을 말한다(追求者的苦悶-談「閑情賦」的思想情賦)』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도연명)는 사랑이 아니라 이상을 썼다.

(他寫的不是愛情，而是理想。)⁴⁴⁾

두 번째는 “예의를 지킨다(守禮說)”는 관점이다.

振甫는 「한정부」를 정치적 이상의 추구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논문 『發乎情止乎禮儀-讀陶淵明「閑情賦」』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에서 그 美人을 닮은 정치가가 있는가? 덕성이 있으면 옥과 난을 비교할 수 있다. 고상한 취미가 있어 그를 바라보며, 깊은 정을 품고 무릎을 맞대고 말하려 하는가? 없다. 그(도연명)는 환현(桓玄)과 유유(劉裕)의 밑에서 벼슬을 했다. 그들 모두 그(도연명)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연명)가 부에서 언급한 美人이 그의 “정치 이상”이란 말인가? 또한 아니다.

(在政治上，有沒有一位政治家像那位美女，有品德可以比玉和蘭，有高超的志趣，對他顧盼含情，要接膝交言呢？沒有。他曾在桓玄和劉裕手下做過官，他們都不是他所想望的人。他在賦里所寫的美

41) 顧竺, 「關於陶淵明的《閑情賦》」,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90.

42) 逯欽立(1910-1973), 字卓亭, 山東巨野人. 對漢魏六朝文學造詣頗深, 撰述很多. 1964年, 始編定《先秦漢魏晉南北朝詩》這部百卷巨帙. 其中《隋詩》10卷, 為目前收錄隋詩最為全備的總集. 另有《陶淵明集》校註(中華書局)等. 在陶淵明研究領域, 逯欽立先生於考證、校勘、註釋和評論等四方面均取得了巨大的成就, 為後續研究奠定了堅實的基礎, 具有很強的指導意義.

43) 逯欽立 校註, 『陶淵明集』, 中華書局, 1979, 第一版.

44) 李健, 『追求者的苦悶-談「閑情賦」的思想情賦』,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5.

人, 是不是他的政治理想呢? 也不是。)45)

振甫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정부」 서문에서와 저자가 부에서 강조하는 예의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과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정부」에서 가장 화려한 문체의 “十願”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정(情)과 지(智)의 모순, 소망과 실제의 모순, 정과 소원을 억누르고 실제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가 되고 싶은 것은 오직 美人이 입고 있는 것, 조금의 소유도 없고, 조금 더 높은 이상이다. (寫出了情和智的矛盾, 愿望和實際的矛盾, 是抑制情和愿望而服從實際。.... 他想變成的只是美人所服用的東西, 連一点占有的意思都沒有, 這種思想也是比較高的。)46)

하지만 이 관점에 대한 반론도 많다. 吳云은 『陶淵明「閑情賦」散論』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다. “「한정부」의 사상은 ‘담대함’으로 봉건 예의를 감히 반대한다(「閑情賦」的思想是‘大膽’的, 敢於反對封建禮教)47)”. 이는 振甫의 守禮說과 배치된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온 것은 바로 도연명 자신과 「한정부」의 독특한 매력 때문이다. 魯迅이 1932년 5월 13일 增田涉48)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정부」는 “견실하고 흥미있는 작품(堅實而有趣的作品)49)”이라고 말했다.

45) 振甫, 『發乎情止乎禮儀－讀陶淵明「閑情賦」』, 《名作欣賞》, 1984, 第02期.

46) 振甫, 위의 글.

47) 吳雲, 『陶淵明「閑情賦」散論』, 山東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80, 第03期.

48) 增田涉, (音ますだわたる, 1903年10月12日－1977年3月10日), 日本中國文學研究者, 魯迅學生, 『中國小說史』日本語譯者.

49) 魯迅, 같은 책, p.414-415.

IV. 葉嘉瑩, 袁行霈의 연구 특성

1. 葉嘉瑩의 詩詞 연구

葉嘉瑩의 호는 迦陵으로 1924년 燕京의 옛집에서 태어났다. 몽골족 만주인이었던 가문은 鑲黃旗 소속으로 명실상부한 학자 집안이었다. 엽가영은 어렸을 때 전통적인 계몽 교육을 받아 중국 고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우며 미래 학술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1941년 베이징 輔仁大學 국문과에 입학하여 중국 고전 詩詞를 주요 전공으로 하여 詩와 詞의 명가들의 문화에서 古詩와 詞曲學을 배웠고, 스승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1948년 결혼 후 남편을 따라 台灣으로 건너가 詩選, 文選, 詞選 등을 가르쳤다. 1960년대 해외로 나가 미국 미시건대학,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평생 교수로 중국 고전 문학, 중국 문학 번역 등 과정을 강의했다. 70년대 말에 엽가영은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귀국하여 강의하게 되었으며 北京大學, 北京師範大學, 南開大學, 天津師範大學, 南京大學, 南京師範大學, 復旦大學, 暨南大學 등 20여 개 대학교에서 학술 강좌를 하였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캐나다 왕립 학회 원사(加拿大皇家學會Fellow of the Royal Society of Canada)’, ‘中國古典文化研究所所長’으로 선임되었다. 『迦陵論詩叢稿』, 『迦陵論詞叢稿』, 『唐宋詞十七講』, 『王國維及其文學批評』, 『漢魏六朝詩講錄』, 『葉嘉瑩說陶淵明飲酒詩及擬古詩』, 『陶淵明的「閑情賦」』 등 학술 서적을 출간했다.

중국 고전 문학의 전문가인 엽가영은 어릴 적부터 고전 詩詞를 공부하였고 캐나다에서 여러 해 동안 중국 고전 詩詞를 강의했다. 葉嘉瑩은 서양에서 장기간 교편을 잡았다. 이 기간에 서양 문예이론 저서를 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서양 학자들과 문학적으로 교류할 기회 또한 많았다. 그녀는 서양 문예이론을 중국 고전 詩詞 연구에 도입하여 중국 고전 詩詞 연구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엽가영의 학술 저서는 1980년대 중국으로 돌아와 대학 강단에 선 이래로 꾸준히 출간되었다. 40여 년간의 저술과 연구 활동으로 오늘날 중국 국학 문단에서 엽가영은 단연 최고의 학자로 손꼽힌다. 1997년 河北教育出版社가 『迦陵文集』⁵⁰⁾ 10권을 출판하였고, 2000년 台灣桂冠圖書公司가 『葉嘉瑩作品集』⁵¹⁾ 24

50) 葉嘉瑩, 『迦陵文集』, 河北教育出版社, 1997.

1.杜甫秋興八首集說 2.王國維及其文學批評 3.迦陵論詩叢稿 4.迦陵論詞叢稿 5.唐宋詞名家論稿
6.清詞叢論 7.古典詩詞講演集 8.漢魏六朝詩講錄 9.唐宋詞十七講 10.我的詩詞道路.

51) 『葉嘉瑩作品集』, 台灣桂冠圖書公司, 2000.

권을 출판했다. 엽가영은 많은 작품을 중국 고전 문학 연구계에 바쳤다.

지금까지 엽가영이 고전을 해석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작품	출판사	출판시간
『迦陵論詞叢稿』	上海古籍出版社	1980
『中國古典詩歌評論集』	廣東人民出版社	1982
『迦陵論詩叢稿』	中華書局	1984
『從中西詩論的結合談中國古典詩歌的評賞』	『求是學刊』	1985 第5-6期
『杜甫『秋興八首』集說』	上海古籍出版社	1988
『唐宋詞十七講』	嶽麓書社出版社	1989.2
『中國詞學的現代觀』	嶽麓書社	1990.7
『詩馨篇』	中國青年出版社	1991.10
『阮籍詠懷詩講錄』	天津教育出版社	1997
『杜甫秋興八首集說』	河北教育出版社	1997
『王國維及其文學批評』	河北教育出版社	1997
『古典詩詞講演集』	河北教育出版社	1997
『漢魏六朝詩講錄』	河北教育出版社	1997
『唐宋詞十七講』	河北教育出版社	1997
『迦陵論詞叢稿』	河北教育出版社	1997
『清詞叢論』	河北教育出版社	1997

葉嘉瑩, 『葉嘉瑩作品集』序言, <http://www.merit-times.com.tw/>.

第一批出版: 1. 『迦陵說詩講稿』 2. 『迦陵論詩叢稿』 3. 『漢魏六朝詩講錄』 4. 『阮籍詠懷詩講錄』
5. 『陶淵明飲酒及擬古詩講錄』 6. 『葉嘉瑩說初盛唐詩』 7. 『葉嘉瑩說中晚唐詩』
8. 『葉嘉瑩說杜甫詩』 9. 『杜甫秋興八首集說』.

第二批出版: 1. 『迦陵說詞講稿』 2. 『名篇詞例選說』 3. 『唐宋詞十七講』 4. 『唐宋詞名家論稿』
5. 『我的詩詞道路』 6. 『迦陵雜文集』 7. 『迦陵詩詞稿』 8. 『迦陵學詩筆記』
9. 『中國古典詩歌的美感特質與吟誦』

『我的詩詞道路』	河北教育出版社	1997
『迦陵論詩叢稿』	河北教育出版社	1997
『唐宋詞名家論稿』	河北教育出版社	1997
『迦陵文集杜甫秋興八首集說』	河北教育出版社	1997
『葉嘉瑩說詞』	上海古籍出版社	1999
『迦陵論詩叢稿』	河北教育出版社	2000
『清詞叢論』	河北教育出版社	2000
『迦陵著作集』	河北教育出版社	2000
『迦陵論詞叢稿』	河北教育出版社	2000
『漢魏六朝詩講錄』	河北教育出版社	2000

<표1> 葉嘉瑩의 2000년 이전 고전 작품 출판물

작품	출판사	출판시간
『曆代名家詞新釋輯評叢書』	中國書店	2001
『名家品詩坊, 唐五代詞』	上海辭書出版社	2004
『迦陵論詩叢稿』	中華書局	2007
『葉嘉瑩說陶淵明的飲酒及擬古詩』	中華書局	2007
『多面折射的光影 葉嘉瑩自選集』	南開大學出版社	2004
『南宋名家詞講錄』	天津古籍出版社	2005
『迦陵論詩叢稿』	中華書局	2005
『葉嘉瑩自選集』	山東教育出版社	2005
『葉嘉瑩說中晚唐詩』	中華書局	2008.1
『迦陵說詞講稿』	北京大學出版社	2007
『人間詞話七講』	北京大學出版社	2014
『小詞大雅 —— 葉嘉瑩說詞的修養與境界』	北京大學出版社	2015.3
『美玉生煙 —— 葉嘉瑩細講李商隱』	北京大學出版社	2018.7

<표2> 葉嘉瑩의 2000년 이후 고전 작품 관련 출판물

2. 袁行霈의 文學史 연구

원행패 자는 춘수(春樹)로, 1936년 4월 18일 濟南에서 태어났으며, 江蘇 성 武進 출신이다. 저명한 고전 문학 전문가로 국내외에 명성이 높다. 부친은 청나라 말기의 거인(舉人)으로 詩文, 書法에 능하였으나 병으로 집필할 수 없게 되자, 원행패가 대신 詩文을 대필하였고, 이를 통해 고전에 대한 흥미를 키웠다. 1953년 北京大學 중문학과에 입학하여 엄격한 학술 훈련을 받았고, 1957년 대학을 졸업한 후 林庚⁵²⁾ 교수의 추천을 받아 北京大學에서 교학과 문학 연구를 시작했다.

1977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 종결된 후 대학교에서 학생 모집이 재개되자 복직한 원행패는 北京大學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중국문학사(中國文學史), 중국 시가 예술 연구(中國詩歌藝術研究), 도연명 연구(陶淵明研究), 당시 연구(唐詩研究), 이하 연구(李賀研究), 당송사 연구(唐宋詞研究) 등을 강의하였다. 원행패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수·당 5대(隋唐五代) 문학 연구를 비롯해 중국의 시가사(中國詩歌史), 중국의 문언소설(中國文言小說)을 두루 섭렵했고, 중국 시가 예술에 대한 연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원행패는 시가 이론을 시가 예술사와 결합하였고, 거시적인 연구(宏觀研究)와 미시적인 연구(微觀研究)를 결합하여 탁월한 학술적 성취를 거두었다. 특히 “橫通與縱通”이라는 방법론을 정립하였고, 이를 도연명 연구에 적용해 『도연명 연구(陶淵明研究)』, 『도연명 집·부와 도시 6종(陶淵明集·附和陶詩六種)』, 『도연명집 전주(陶淵明集箋注)』, 『도연명 향년 고변(陶淵明享年考辨)』 등을 출판하여, 도연명 연구에서 하나의 학파(一個學派)를 이루었다.

원행패는 고전문학 교육에 끊임없이 진취적으로 탐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학술 저서가 꾸준히 출간되기 시작했다.

고전 문학을 다루는 학자로서 六朝詩, 唐詩, 宋詞, 文言小說의 연구 영역에 치우친 원행패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척했다. 원행패는 “학문을 하는 방법은 복잡한 일을 간단명료하게 말하는 방법과, 간단한 일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뿐이다(做學問无非是兩種方法：一種是把複雜的事情說得簡單明白；另一種是對簡單的事情，作出深入細致的分析)”라고 말했다. 1987년 원행패의 『中國詩歌藝術研究(중국시가예술 연구)』⁵³⁾가 출판하였고, 이 책은 다시 한국어와 일본어로 출간되었다.

52) 林庚, (1910年2月22日-2006年10月4日), 현대 시인, 고대문학자, 문학사가, 복경대학교 교수.

원행패의 고전에 대한 중요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작품	출판사	출판시간
『魏晉南北朝文學史參考資料』	中華書局	1963
『中國文言小說書目』 合編	北京大學出版社	1982
『中國文學史綱要』	北京大學出版社	1983
『中國詩歌藝術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87.6
『曆代名篇賞析集成』 主編	中國文聯出版公司	1988
『中國文學概論』	香港三聯出版社	1988
『中國詩學通論』 合著	安徽教育出版社	1994
『陶淵明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7
『陶淵明集·附和陶詩六種』	遼寧教育出版社	1997
『袁行霽學術文化隨筆』	中國青年出版社	1998
『中國文學史』 主編	高等教育出版社	1999
『當代學者自選文庫·袁行霽卷』	安徽教育出版社	1999.5
『陶淵明集箋注』	中華書局	2003.4
『唐詩風神及其袁行霽』	香港城市大學出版社	2005.12

<표3> 袁行霽의 고전 작품 출판물

작품	출판사	출판시간
家	『山東文學』	1958.01期
也談山水詩的產生問題	『文學評論』	1961.04期
評介『陶淵明詩文集評』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61.06期
崇高的人格偉大的詩篇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62.03期

53) 원행패, 『中國詩歌藝術研究(중국시가예술연구)』, 북경대학출판사, 2001.

	科學版』	
王維詩歌的禪意與畫意	『社會科學戰線』	1980.02期
感受聯想修養——中國古典詩歌的藝術 鑒賞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	1980.03期
論意境	『文學評論』	1980.04期
論屈原的人格美	『學術月刊』	1981.02期
論李杜詩歌的風格與意象	『社會科學戰線』	1981.04期
中國古典詩歌的多義性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	1983.02期
閱讀古典詩詞應當注意的幾個問題	『北京電大學刊語文版 』	1984.第6期
陶謝詩歌藝術的比較	『九江師專學報』	1985.Z1期
以賦爲詞——試論清真詞的藝術特色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	1985.05期
溫詞藝術研究——兼論溫韋詞風之差異	『學術月刊』	1986.02期
詞風的轉變與蘇詞的風格	『社會科學戰線』	1986.03期
探索中國詩歌藝術的奧秘	『讀書』	1987.06期
李白的宇宙境界	中國李白學會第二屆年 會紀事	1989
陶淵明謝靈運與慧遠	『中國典籍與文化』	1992.01期
陶淵明的『閑情賦』與辭賦中的愛情 閑情主題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	1992.05期
開放的國學與開放的『國學研究』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	1994.06期
百年徘徊——初唐詩歌的創作趨勢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	1994.06期
陶淵明享年考辨	『文學遺產』	1996.01期
古典詩詞與情趣的陶冶	『中國大學教學』	1996.02期
評中島敏夫整理本『唐詩類苑』及其研 究	『中國典籍與文化』	1996.03期
陶詩主題的創新	『中國文化研究』	1997.01期
關於文學史幾個理論問題的思考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	1997.05期
盛唐詩歌與盛唐氣象	『高校理論戰線』	1998.12期

守正出新及其袁行霈——關於中國文學史的編寫與教學	『中國大學教學』	1999.06期
陶詩析疑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1.03期
學術風氣與學者風範	『人民日報海外版』	2001.5.22
中國傳統的文學崇高觀與新世紀的文學理念	『中國文化研究』	2002.01期
逝川之歎——古代哲人和詩人對時間的思考	『中國文化研究』	2002.03期
論和陶詩及其文化意蘊	『中國社會科學』	2003.06期
李白『古風』(其一)再探討	『文學評論』	2004.01期
玉真公主考論——以其與盛唐詩壇的關係為歸結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02期
唐詩風神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05期
李林甫與盛唐詩壇	『文學遺產』	2004.05期
讀張風『淵明嗅菊圖』	『榮寶齋』	2004.06期
文化的饋贈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06期
唐玄宗與盛唐詩壇——以其崇尚道家與道教為中心	『中國社會科學』	2005.04期
讀陳洪綬『博古葉子』陶淵明像	『榮寶齋』	2005.02期
袁行霈把一生獻給文博事業——紀念朱家疇先生	『人民政協報』	2006.3.16
古代繪畫中的陶淵明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6年06期
文學、文化、文明：橫通與縱通——袁行霈教授訪談錄	『文藝研究』	2006.12期
中華文明的曆史啓示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01期
楊氏兄妹與盛唐詩壇	『文學評論』	2007.03期
姚崇、宋璟與盛唐詩壇	『文學遺產』	2007.03期
國學究竟有什麼用？	『人民日報』	2007.6.20

<표4> 袁行霈의 출간된 연구 논문

V. 葉嘉瑩 「閑情賦」에 대한 연구 해석과 그 의미

1. “興發感動”의 문학 이념

엽가영은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서양 문학을 모두 겸비할 수 있었다. 엽가영의 고전 시사 문학 연구는 서양 현대 문학 이론에 바탕을 둔 중국 고전을 감상비평⁵⁴⁾하는 방식을 절묘하게 계승한 것이다. 그녀는 또한 문학 비평의 실천에서 서양 학문을 참고로 중국 전통의 뿌리로 돌아가 중국 문학의 비평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현대 중국 문학의 발전을 이끈 중국 고전문학의 독보적 존재이다.

엽가영의 연구 범위는 매우 넓다. 그녀는 해외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중국의 전통 詩와 서양의 연구 방법을 접목하게 되었고 유례없는 시각으로 詩詞를 해석하여 독특한 ‘엽씨 시사해설(葉氏詩詞解說)’을 만들어 내었다. 엽가영은 詩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고, ‘중국의 치마 입은 최후의 선비(中國最後一位穿裙子的‘士’)'로 불리웠다. 그녀는 평생을 시사에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2020년에는 97세의 나이로 「감동중국(感動中國)」⁵⁵⁾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2020年感動中國人物”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연명에 대한 엽가영의 분석은 이전 연구와 많은 다른 점이 있다. 그녀는 서양 문학 비평 이론을 통해 도연명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대 도연명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고는 도연명의 「한정부」에 대한 엽가영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연명에 대한 새롭고 다각적인 해석을 담고자 했다.

엽가영은 「한정부」에 대해 “도연명이 이 賦를 썼기 때문에 그의 인격은 비로소 완벽해졌다(就是寫了這一篇賦, 陶淵明的人生才完整)”⁵⁶⁾라고 높이 평가했다. 어떤 이유로 엽가영이 「한정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엽가영의 詩詞 감상의 준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흥발감동(興發感動)”이다. “흥발감동”이란 개념은 그녀의 저서에서도 수없이 언급되었다. 그럼 엽가영이 생각하는 詩 속 “흥발감동”은 무엇일까?

54) 감상비평,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비평. 대상을 잘 관찰하고, 음미하며, 대상과의 동화(同化)를 이루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55) 「감동중국(感動中國)」은 중앙 텔레비전(CCTV) 종합편성채널이 만든 코너로, 중앙 텔레비전 뉴스센터 사회특제부 활동 생중계팀이 주관하여 매년 2월 진후에 출시한다. 이미 여러 해를 거쳐 연속 개최하였는데, 각종 투표 방식을 통해 올해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물과 단체를 선정한다.

56) 葉嘉瑩, 『葉嘉瑩說陶淵明飲酒詩與擬古詩』, 中華書局, 2007, p.265.

엽가영은 「不可以貌求的感發生命」이란 글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시가가 시가인 이유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일련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적인 것에 관해 나는 여러 해 동안의 비평과 실천을 겪은 후에 마침내 비교적 명확한 견해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가 속 ‘흥발감동’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詩歌之所以爲詩歌, 在本質方面是一直有著某些永恒不變的質數的緣故。關於這種質數, 我在經過多年批評實踐之後, 終於在後來提出了一個較明確的說法, 那就是“詩歌中興發感動之作用”。)⁵⁷⁾

이로써 평생동안 공들인 학문의 이념인 “흥발감동”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엽가영의 “흥발감동”은 『王國維之文學批評』⁵⁸⁾, 『人間詞話七講』⁵⁹⁾, 『我的詩詞道路』⁶⁰⁾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흥발감동”은 엽가영 시평의 중요한 사상으로, 그 안에 포함된 중국 고대 사상과 서양 문학 비평 사상은 모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詩는 일종의 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한 감동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읽는 이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많은 아름다운 감정과 고상한 의미를 불러올 수 있어 오래도록 마음 깊숙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엽가영은 『迦陵說詩·從形象與情意之關係看賦比興之說』에서 이렇게 썼다.

……“부(賦)”, “비(比)”, “흥(興)” 세 글자의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소위 “賦”는 늘어놓는다는 의미로, 서술하고 싶은 사물을 직접 서술하는 표현 방법이고, “比”는 擬諭의 의미로써, 서사하고자 하는 사물을 다른 사물을 빌어다 서술하는 방법이며, 소위 “興”이란 감흥(感興)을 불러일으키는 뜻으로써, 어떤 사물의 촉발로 인하여 쓰고 싶은 사물을 끌어내는 표현의 한 방법이다.

(……從‘賦’比‘興’三個字最簡單最基本的意義來加以解釋的話, 則所謂‘賦’者, 有鋪陳之意, 是把所欲敘寫的事物加以直接敘述的一種表達方法; 所謂‘比’者, 有擬諭之意, 是把所欲敘寫的事物借比爲另一種事物來加以敘述的一種方法; 而所謂‘興’者, 有感發起興之意, 是因某一事物之觸發而引出所欲敘寫之事物的一種表達方法。)⁶¹⁾

57) 葉嘉瑩, 『迦陵論詞叢稿·古典詩歌興發感動之作用(代序)』, 河北教育出版社, 2008年, p.3.

58) 葉嘉瑩, 『王國維及其文學批評』, 河北出版社, 1997.

59) 葉嘉瑩, 『人間詞話七講』, 北京大學出版社, 2014.

60) 葉嘉瑩, 『我的詩詞道路』, 河北出版社, 2000.

61) 葉嘉瑩, 『迦陵論詩叢稿·中國古典詩歌中形象與情意之關係例說-“賦”, “比”, “興”之爲義及“比”, “興”二體中形象與情意之關係』, 中華書局, 2007, p.324.

이것은 바로 엽가영의 『陶淵明的「閑情賦」』라는 글에서 말한 바와 부합된다.

시인의 마음속에 일종의 “흥발감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인이 시를 지은 인연이자 시의 시작이다. 마음속의 감정에 감동이 있으므로 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詩人內心之中有一種興發感動，這就是一個詩人作詩的緣起、詩的開始。是因爲內心之中的情意有一種感動，所以想用詩來表達。)62)

사실 “興”은 이전 문학 이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 왔다.

태사가 六律과 六同을 관장하여 음양의 소리를 규합한다……六詩를 내니, 풍이요, 부요, 비요, 흥이요, 아요, 송이다. 六德으로 그 근본을 삼고, 六律로 그 소리를 삼는 것이다.

(『周禮·春官·大師』：大師掌六律六同，以合陰陽之聲……教六詩：曰風，曰賦，曰比，曰興，曰雅，曰頌。以六德爲之本，以六律爲之音。)63)

그러므로 시에는 六義가 있으니 첫째 풍이요, 둘째 부요, 셋째 비요, 넷째 흥이요, 다섯째 아요, 여섯째 송이다.

(『毛詩序』：故詩有六義焉：一曰風，二曰賦，三曰比，四曰興，五曰雅，六曰頌。)64)

“비”에 대해서는 날로 쓰매 “흥”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니, 작은 것은 익히되 큰 것은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漢나라의 작품이] 周나라 사람[시경의 시인]의 것보다 못한 까닭이다.

(劉勰 『文心雕龍·比興』：日用乎‘比’，月忘乎‘興’，習小而棄大，所以文謝于周人也。)65)

유협(劉勰)은 ‘후대의 글이 주대(周代)의 문장보다 못한 이유’를 ‘興이 후대의 글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들은 모두 興이 중국 고대 문학의 창작 기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인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62) 葉嘉瑩, 『葉嘉瑩說陶淵明飲酒詩及擬古詩·陶淵明的「閑情賦」』, 中華書局, 2007, p.250.

63) 李學勤主編, 『周禮註疏』, 北京大學出版社, 1999, p.607-610.

64) 李學勤主編, 『毛詩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 p.11.

65) 周振甫, 『文心雕龍今譯』, 中華書局, p.324.

2. 「閑情賦」 해석에 대한 고찰

그렇다면 「한정부」가 엽가영에게 어떤 이유로 “흥발(興發)”하고, 왜 “감동(感動)”하는 작품인 것일까? 먼저 엽가영은 도연명을 “以感寫思”, 즉 감각과 감정을 통해 사상을 써 내려간 문인이라 평가한 바 있는데, 이는 서양 문학 비평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의 오랜 거주와 학문적 교류는 그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별히 작품에서 의식(consciousness)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식비평(意識批評 Criticism of Consciousness)”⁶⁶⁾이라는 새로운 문학 비평의 등장은 그녀의 학문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엽가영은 서양의 “의식비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서양에는 의식비평(Criticism of Consciousness)이라는 문학이론이 있다. 의식비평은 작품 속에 표현된 일종의 의식 형태(patterns of Consciousness)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위대한 작가들의 일련의 작품에서 숨겨진 기본형태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작가마다 그 형태(pattern)가 다 다르다.

(西方有一種文學理論叫做意識批評(Criticism of Consciousness), 意識批評着重探討的是作品中所表現的一種“意識形態”(patterns of Consciousness), 而且他們認為, 我們都可以從很多偉大的作家一系列的作品中, 尋找出一種潛藏的基本形態來。每個作家都有不同的“形態”(pattern)……⁶⁷⁾

위대한 작가일수록 그의 의식은 반드시 비교적 고정된 pattern이 있다. 굴원이 이와 같으며, 두보가 이와 같으며, 도연명도 이와 같다.

(越是偉大的作家, 他的意識越應該有一個比較固定的pattern, 屈原如此, 杜甫如此陶淵明也是如此。)⁶⁸⁾

사실 중요한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시에 그런 “感發生命”을 담고 있는냐는 것이다. 詩는 일종의 感發의 힘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감발의 힘의 크기는 반드시 작가의 그 感發生命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흥미롭게도 서양 문학의 영향을 받은 왕국유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66) “진정한 비평적 사고의 귀착지라고 할 수 있는 독서 행위는 독자의 의식과 작가의 의식이라는 두의식의 일치를 전제한다.” 조르주 풀레(Georges poulet)의 비평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두 의식의 일치를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다. 우선 이해해야 하고 그에 앞서 열렬한 독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비로소 비평은 가능하다.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내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고뇌하며, 행동한다.

67) 叶嘉莹, 「從西方文論看李商隱的几首詩」, 陝西師範大學學報, 2005年7月第34卷第4期, p.35-48.

68) 叶嘉莹, 『叶嘉莹談詞』, 南開大學出版社, 2010.

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시인의 경계가 있고, 보통 사람의 경계가 있다. 시인의 경계는 오직 시인만이 그것을 느끼고서 그 느낀 것을 써 낼 수 있다. 때문에 그 시를 읽는 사람도 (시인의 느낌에 따라) 높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멀리 천지 만물을 갈망하게 되어, 세상에 초연한 뜻을 갖게 된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를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또한 설사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각자 깊음과 얕음이 있다. 슬픔, 기쁨, 이별, 만남의 감정, 떠도는 나그네나 여행의 피로와 나가는 사람의 심정과 같은 것은 보통 사람들도 모두 느낄 수 있지만, 오직 시인만이 그것을 꼭진하게 표현해 낼 수 있다.

(境界有二；有詩人之境界，有常人之境界。詩人之境界，惟詩人之能感之而能寫之，故讀其詩者，亦高舉遠慕，有遺世之意。而亦有得有不得，且得之者亦各有深淺焉，若夫悲歡離合、羈旅行役之感，常人能感之，而惟詩人能寫之。)69)

“시인의 경계”를 제시한 왕국유처럼 엽가영도 ‘시인의 마음속 “감발하는 생명(感發生命)”을 전달해 독자들이 감명받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녀는 도연명의 시가 뛰어난 이유를 시적 언어와 예술적 표현법으로 삶의 좋은 철학 체험을 “以感寫思”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정부」에는 확실하게 도연명의 이런 “以感寫思” 사상이 많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한정부」 서문에서 도연명은 “檢逸辭而宗淡泊(화려한 말은 억제하고 담박함을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당시 사회적으로 유행하던 글쓰기 소재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토로하고자 한 것이다. 엽가영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연명이 표현한 고아한 여인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통해 고상한 성품에 대한 욕구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로, “負雅志於高雲”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意象”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飲酒」시에서 “새(鳥)”70)를 통해 자신의 고상한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이런 표현 수법도 도연명이 자주 사용해 온 창작 기법 중 하나이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도연명의 작품은 왕국유가 “무아지경”이라 부르는 것 외에도 수많은 和陶詩71)를 탄생시켰는데, 그럼에도 왜 「한정부」에 대한 반론이 많은 걸까? 도연

69) 王國維 지음, 조성천 옮김, 『인간사화』, 지식음만드는지식, 2016, p.177-180.

70) 도연명이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이미지는 “새(鳥), 소나무(松樹), 국화(菊花)”이다. 그러나 “새”의 이미지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소나무”와 “국화”는 실재하지만 “새”는 어느 때는 실재를 말하지만, 또 어느 때는 허구를 말한다. 엽가영은 도연명 시에서 “새”라는 이미지가 갖는 의미를 언어에 따라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명이 「한정부」에서 기존의 변려문과 같은 기법으로 유명한 “십원(十願)”을 썼기 때문이다. 과연 이 “십원”이 무엇인지 먼저 이 “십원”을 살펴보자.

1)

願在衣而爲領,
원컨대 내가 옷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옷깃이 되어,
承華首之餘芳 ;
고운 머리카락의 남은 향기 맡아 보고 싶건만,
悲羅襟之宵離,
슬프다! 밤이 되면 벗어버릴 비단 옷깃,
怨秋夜之未央。
아직도 많이 남은 가을밤을 원망할까봐.

2)

願在裳而爲帶,
원컨대 내가 치마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허리끈 되어,
束窈窕之纖身;
그대의 아름다운 가는 몸을 묶어보고 싶건만,
嗟溫涼之異氣,
안타깝구나! 따뜻하고 추운 계절 바뀔 때마다,
或脫故而服新。
혹 옛 옷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 버릴까봐.

3)

願在髮而爲澤,
원컨대 내가 머리카락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머릿기름 되어,
刷玄鬢於頰肩;
어깨까지 늘어진 검은 머리 빗겨 주고 싶건만,
悲佳人之屢沐,
슬프다! 아름다운 이는 머리 자주 감는지라,
從白水以枯煎。
맑은 물로 씻어내 버릴까 가슴 졸이며 애태울까봐.

71) 화도시(和陶詩)란 도연명을 매우 추앙하는 시로, 보운, 차운, 종운 등의 형식으로 대량의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화도시는 진나라 이후의 시인을 위해 지은 화도시의 총칭이다. 진정한 의미의 ‘화도시’는 소식(蘇軾)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식과 도시의 운이라는 독창적인 형식의 효험을 가지고 그 시를 지은 것이다.

4)

願在眉而爲黛,

원컨대 내가 눈썹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눈썹먹이 되어,

隨瞻視以閑揚;

그대의 눈길 따라 아름답게 드날리고 싶건만,

悲脂粉之尙鮮,

슬프다! 연지와 분을 더 아름답다고 여겨,

或取毀於華粧。

혹 화장하며 지워져 버릴까봐.

5)

願在莞而爲席,

원컨대 내가 왕골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자리 되어,

安弱體於三秋;

가을 석 달 그대 약한 몸 편히 해 주고 싶건만,

悲文茵之代御,

슬프다! 수놓은 자리가 대신 차지하여,

方經年而見求。

한 해 지나서야 바야흐로 날 찾을까봐.

6)

願在絲而爲履,

원컨대 내가 실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신발이 되어,

附素足以周旋;

그대의 흰 발에 붙어 다니고 싶건만,

悲行止之有節,

슬프다! 행동거지에 절도가 있어서,

空委棄於床前。

헛되이 침상 앞에 버려질까봐.

7)

願在畫而爲影,

원컨대 내가 낮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의 그림자 되어,

常依形而西東;

항상 그대의 형상 따라 서쪽 동쪽 드리우고 싶건만,

悲高樹之多蔭,

슬프다! 높은 나무 그늘에 가려,
概有時而不同。

때때로 그대 따르지 못할까봐.

8)

願在夜而爲燭,
원컨대 내가 밤으로 있게 된다면 그대 위해 촛불 되어,
照玉容於兩楹;

기둥 옆에서 옥 같은 얼굴 비취 주고 싶건만,
悲扶桑之舒光,

슬프다! 부상(扶桑)의 해가 서서히 떠올라 비추면,
奄滅景而藏明。

갑자기 불 꺼져 밝음 사라질까봐.

9)

願在竹而爲扇,
원컨대 내가 대나무로 있게 된다면 그대 위해 부채 되어,
含淒颯於柔握;

시원한 바람 품어 그대 부드러운 손에 잡혀 있고 싶건만,
悲白露之晨零,

슬프다! 흰 이슬 새벽에 내리기 시작하면,
願襟袖以緬邈。

아득하게 떨어져 그대 옷깃만 돌아보게 될까봐.

10)

願在木而爲桐,
원컨대 내가 나무로 있게 된다면 그대 위해 오동나무가 되어,
作膝上之鳴琴;

그대 무릎에서 울리는 거문고가 되고 싶건만,
悲樂極以哀來,

슬프다! 즐거움이 지극하면 슬픔이 오나니,
終推我而輟音。

끝내 나를 밀쳐 내고 연주를 그치게 될까봐.⁷²⁾

72) 본고 p.8-10 참고.

「한정부」가 도연명의 창작 경향과 전혀 다르게 화려하게 쓰여진 것은 사실이다. 문장의 화려한 수사로 아름다운 사랑을 작품의 주제로 설정할 수 있을까? 엽가영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런데 도연명이 쓴 “높은 구름의 고아한 뜻에 부심하네”는 고상한 품격을 지닌, 현실적인 여인이 아니고, 그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상징이며, 지향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可是陶淵明所寫的那個“負雅志于高云”的女子，有着這樣高雅的品格，不是一個現實的女子，使他理想之中的一个美好象征，他所向往的一个象征。)73)

먼저, 도연명이 “십원”에 나온 아름다운 소원이 “一悲”로 이어진다는 것은 도연명이 바라던 “十願”이 허사로 끝나버리는 비극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정부」가 단순한 사랑 賦라면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연명은 “나는 내 이웃 중에 求仲, 羊仲 같은 사람이 없고, 내 집에도 노래자의 아내 같은 사람이 없어 매우 유감이다. 내 마음속은 매우 고독하고, 고민이 있다(但恨鄰糜二仲, 室無萊婦, 抱茲苦心, 良獨內愧)”74)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가 아내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꿈의 그 미인은 사랑에 대한 소망을 모두 들어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랑을 왜 모두 “비극(悲劇)”으로 끝내야 했을까? 이것은 도연명의 ‘사랑’이나 ‘꿈꾸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미인으로 대표되는 그 고아한 품성에 대한 추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賦에서 도연명은 “만 가지 생각 날려버려 성실함을 보존하고, 아득한 정회 먼 팔황에 잠재운다(坦萬慮以存誠, 憩遙情於八遐)”75)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모든 그리움을 다 털어버리는 대신 자신 안의 충성을 표현하고, 그 그리움을 먼 곳에 기탁하고 싶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허무맹랑한 것에 내맡겨진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실의에 빠진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엽가영은 도연명의 수법을 이백의 「月下獨酌」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이백의 「月下獨酌」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아득한 은하수 만나기를 기대한다(永結無情遊, 相期邈雲漢)76)”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정치적 타격으로 실의에 빠진 시인이 자신

73) 葉嘉瑩, 『葉嘉瑩說陶淵明飲酒及擬古詩』, 中華書局, 2007, p.266.

74) 陶淵明 著, 陶澍 集注, 龔斌 點校, 『陶淵明集全集·與子儼等疏』, 上海古籍出版社, 2015, p.159.

75) 원행패 지음, 같은 책, 학고방, p.181.

76) “永結無情遊, 相期邈雲漢。”(但愿能永遠盡情漫遊, 在茫茫的天河中相見。)

영원히 마음껏 거닐고 망망한 하늘 속에서 만나기를 바랄 뿐이다.

의 근심을 해소하고자 지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엽가영이 「한정부」를 「月下獨酌」로 설명함은 「한정부」를 “애정부(愛情賦)”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1) 권고부

엽가영이 「한정부」에서 도연명이 묘사한 “얼마나 옥처럼 뛰어난 자태인가, 유독 넓은 세상 빼어난 이들 중 으뜸이네(夫何瓌逸之令姿，獨曠世以秀羣)”인 “절세의 미인(絕世美人)”은 도연명의 염원으로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다. 엽가영은 「한정부」는 단순히 남녀의 사적인 감정을 쓴 것이 아니라 도연명 자신의 “느낌(感之)”이라는 문학적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한정부」를 “애정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바로 「한정부」가 권고부(勸告賦)라는 엽가영의 주장과 부합된다. 엽가영은 「한정부」가 세상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閑”의 의미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閑”는 글자 그대로 매우 오묘하다. 이 “閑”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통가자 “閒”으로 표현 될 수 있다. 이 “閑情” 중요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으며, 엄숙하지 않은 감정이다. 한가한 시간에 우연히 일어나는 감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글자 그대로 “閑”이 될 수 있다. 원래는 門이고, “門”이 글자는 문 위의 빗장을 표시한 것으로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국 글자는 매우 오묘하다. 『맹자』가 말하기를,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아름다운 것은 보고, 아름다운 감상하되 그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이 찬성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은 남녀 간에 발생하지만, 예절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毛詩·大序』) 너는 ‘情’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절제해서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閑”는 정을 가두는 것이다. 너의 감정이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좌충우돌하게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의 그 감정을 가두고, 닫고 구속해야 한다. 그래서 도연명은 “시작인 경우 생각을 탕일(蕩逸)하게 펼치게 되면 끝내 올바른 바를 막는 데로 돌아가 버린다”, “장차 이것으로써 유탕(流宕)한 사심(邪心)을 막아”, 그(도연명)는 내가 이런 부문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장차 이것으로써 유탕(流宕)한 사심(邪心)을 막아”, 이런 유탕하고 부정당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것을 억제할 때 “진실로 풍간(諷諫)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도연명)가 이 부를 쓴 이유는 권고이다. 즉, 사람의 감정은 남녀 간에 발생하지만, 예절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這個“閑”字就很妙，這個“閑”字有兩種可能，它一方面是通“閒”，這個閑情就是不重要的、不正當的、不嚴肅的一種感情，是閑暇時間偶發的這種感情；另一方面，這個“閑”字又作“閑”，本來是個門，門中間是個木，這是表示門上面的門門，把這個門關起來了，所以中國字就很妙了。『孟子』上說了，“不知子都之姣者，無目者也”。美你都看見了，美你都欣賞了，可是你不能够放縱你的感情，你要有一個理智，所以中國所贊成的，是“發乎情，止乎禮”（『毛詩·大序』），你是“發乎情”，但是還要“止乎禮”。所以這個“閑”是把情封閉起來，你不能任憑你的感情像一匹野馬一樣橫沖直撞地亂跑，這樣是不可

以的, 你還要把你那個感情約束起來, 要關閉、約束起來, 所以陶淵明說“始則蕩以思慮, 而終歸閑正”, “將以抑流宕之邪心”, 他說我要用這樣的賦做什麼?“抑流宕之邪心”, 壓抑這種流宕的、不正當的心, 把它壓下去。“諒有助於諷諫”, 所以我寫這樣的賦, 是勸告人, 就是說雖然你是“發乎情”了, 但是還要“止乎禮”。)77)

위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 엽가영은 “閑”자를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통가자(通假字)로 “閒(한가하다)”이라는 뜻과 또 하나는 문 중간에 나무 하나를 놓는 것으로, “가둠”을 뜻한다. 결국 『毛詩·大序』에서 “사람의 감정은 남녀 간에 발생하지만, 예절의 제약을 받는다(發乎情, 止乎禮儀)”라고 했듯이, 이 “閑”는 정(情)을 가두고, 감정이 윤리, 도덕의 길에서 마음대로 좌충우돌하지 않도록 구속하고, “시작인 경우 생각을 탕일(蕩逸)하게 펼치게 되면 끝내 올바른 길을 막는 데로 돌아가 버린다(使則蕩以思慮, 而終歸閑正)”는 것이다. 이 또한 「한정부」가 주장하는 “抑流宕之邪心”이다. 사실 도연명의 「한정부」에도 “發乎情, 止乎禮”가 표현되어 있다.

그도 가고 싶지만 예의에 저촉될까 두렵다. 봉조에게 중매를 서고 싶어도 기회를 놓칠까 봐 겁이 나서 앞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온갖 헛된 생각만 한다. 그의 방한정사(防閑情思)78)는 예의를 준수하기 때문에 감히 범하지 못한다.

(欲自往以結誓, 懼冒筭之爲愈。待鳳鳥以致辭, 恐他人之我先。意惶惑而靡寧, 魂一夕而九遷。他也很想去, 但怕觸犯禮教, 想托鳳鳥作媒, 又怕失掉時機, 因此不敢前去, 夢中產生各種胡思亂想。他的防閑情思, 由於遵守禮教, 不敢觸犯。)79)

이 밖에 서양 신비평(新批評) 사상을 받아들이고, 서양 비평 이론을 중국 전통 문학 비평 이론과 탁월하게 융화시킨 엽가영은 서양의 신비평 이론의 작가의 생애, 품격, 감정으로 시의 호불호를 따진다는 것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설법은 일정한 의문이 생기는데, “충효결의(忠孝節義)”를 쓴다고 모두 좋은 시는 아니며, 반대로 남녀의 사랑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엽가영이 서양의 신비평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정부」는 남녀의 사사로운 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음담시부(淫詞詩賦)”라 규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엽가영이 「한정부」를 “애정부”라 부는 관점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77) 葉嘉瑩, 『葉嘉瑩說陶淵明飲酒及擬古詩』, 中華書局, 2007, p.252.

78) 방어적, 절제적 감정.

79) 振甫, 『發乎情知乎禮儀—讀陶淵明「閑情賦」』, 名作欣賞, 1984.

2) 작품 평가의 패쇄성

엽가영은 「한정부」에서 “높은 구름의 고아한 뜻에 부심하네(負雅志於高雲)”라고 한 여인은 현실에서 도연명의 사랑을 실제로 추구하거나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며, 이것은 도연명의 일관된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즉, “六義” 중의 “比”의 방법은, 욕망하고 싶은 사물을 다른 것에 비유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여인은 ‘도연명의 아름답고 고상한 성품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다. 확실히 도연명의 시에는 직유, 은유, 대유 등 “비(比)”의 표현이 곳곳에서 보인다. 예를 들면, “棲棲失群鳥⁸⁰⁾와 “飛鳥相與還⁸¹⁾의 ‘鳥’는 ‘鳥’를 빌려서 사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신을 비유하거나 “因值孤生松”과 “獨樹衆乃奇⁸²⁾” 중의 ‘松’을 차용하여 자신의 지조가 굳고 결백하며 출중한 품격의 추구를 나타내는가 하며, 관청(官場)에서 소인(小人)에 대한 풍자와 천하에 드문 고상한 현사(賢士)에 대한 은근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도연명이 쓴 7편의 「영빈사(詠貧士)」 중 엽가영은 “萬族各有托, 孤雲獨無依⁸³⁾”라는

80) 장기근, 『도연명』, 석필, p.92.

陶淵明 『飲酒·其四』

棲棲失群鳥, 日暮猶獨飛。徘徊無定止, 夜夜聲轉悲。厲響思清遠, 去來何所依。
因值孤生松, 歛翮遙來歸。勁風無榮木, 此蔭獨不衰。託身已得所, 千載不相違。
무리를 잃은 새 한 마리 불안에 떨며, 해가 저도 여전히 날고 있어라.
정착하지 못하고 노상 배회하며, 밤마다 더욱 서글프게 울어라.
날카롭게 울며 아득히 맑은 곳 그리듯, 잊지 못하여 연연히 오락가락하여라.
마침내 외파로 자란 소나무를 만나, 먼길 날아 날개 접고 들었노라.
세찬 바람에 나무들 꽃피우지 못할 새, 오직 시들지 않고 우거진 소나무.
이미 나의 몸 의지할 곳 찾았으니, 천년토록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라.

81) 장기근, 같은 책, p.94.

陶淵明 『飲酒·其五』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此中有真意, 欲辨已忘言。
사람들 틈에 농막 짓고 사니, 수레 끌고 시끄럽게 찾는 자 없노라.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니, 마음이 머니 땅 스스로 외지구나.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꽃 따 들고,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노라.
가을 산 기운 저녁에 더욱 좋고, 나는 새들 짝지어 집으로 돌아오니.
이러한 경지가 바로 참맛이려니,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라.

82) 장기근, 같은 책, p.100.

陶淵明 『飲酒·其八』,

青松在東園, 衆草沒其姿。凝霜殄異類, 卓然見高枝。連林人不覺, 獨樹衆乃奇。
提壺掛寒柯, 遠望時復爲。吾生夢幻間, 何事泄塵羈。
동원에 자란 푸른 소나무, 못풀에 묻혀 안 보였으나.
찬 서리에 다른 나무 시들자, 높은 가지 우뚝 솟아 보이더라.
숲에 끼여 사람들 몰랐으나, 홀로 남으니 더욱 기특구나.
술병을 겨울 술가지에 걸고, 몇 차례 멀리서 바라보노라.
삶은 꿈과 환상이거늘, 왜 진세의 구속에 매여야 하느냐!

83) 장기근, 같은 책, p.192.

陶淵明 『詠貧士·其一』,

구절을 당시 위진시대의 문인들과 달리 외롭고 의지할 곳 없던 도연명의 이상 추구라고 보았다. 또한 도연명의 「擬古」에서도 도연명의 이상 추구는 잘 표현되고 있다.

길가의 두 고분 伯牙와 莊周라네. 이 선비는 다시 얻을 수 없으니, 나는 무엇을 구하려 하겠는가!

(路邊兩高墳，伯牙與莊周。此士難再得，吾行欲何求！)⁸⁴⁾

도연명은 현실에서 뜻을 같이할 사람을 찾을 수 없기에 자신과 함께 할 이들을 옛 선인들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옛 선인의 모습은 도연명이 고독과 빈곤 속에서 버티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그를 진정한 정신적 강자로 만들었다. 도연명의 마음속에 현실 속의 적막함과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쌓여 있었다. 도연명은 자신의 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진실한 감정으로 토로한 위대한 시인이었다. 도연명이 일생동안 쓴 시를 보면, 전원시(田園詩)가 많았으며, 여전히 많은 시가 직유, 은유, 대유 등의 수법을 통해 자신의 인생 추구하고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가 쓴 것은 풍경의 겉모습이 아니라 풍경을 통해 깨달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었다. 도연명의 또 한 가지 위대한 점은 그가 비유를 통해 “창작(創作)”한 시에서 묘사한 대상이 반드시 실재가 아니라, 창작해 낸 형상으로 이른바 “以感寫思”의 경계(境界)가 높다는 점이다. 도연명의 이런 고적함은 「한정부」에서 “負雅志於高雲”이 여인에 대한 욕구로, 역시 남녀의 사사로운 정을 빌려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향수와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청나라의 왕국유(王國維)는 “경계설(境界說)”⁸⁵⁾을 제시했다. 왕국유는 『인간사화(人間詞話)』에서 “사(詞)는 경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경계가 갖추어지면 저절로 높은 품격이 이루어지고, 훌륭한 시구가 놓이게 된다(詩以境界爲最上，有境界自成高格，自有名句)”고 했고, “경(境)이란 것은 단지 경물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회로애락 또한 사람 마음속의 하나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경물과 참다운 감정을 묘사할 수 있다면 이를 경계가 있다고

萬族各有託，孤雲獨無依。曖曖空中滅，何時見餘暉。朝霞開宿霧，衆鳥相與飛。
遲遲出林鳥，未夕復來歸。量力守故轍，豈不寒與饑。知音苟不存，已矣何所悲。
만물은 저마다 몸 붙일 곳이 있거늘, 외로운 구름은 홀로 의지할 데 없이.
아득아득 공중에서 사라져 없어지니, 언제나 은은하게 여광을 남기리오!
새벽놀에 밤안개가 걷히고, 못새들 짝지어 날건만.
미적미적 숲을 나선 늦발이 새는, 저녁도 되기 전에 다시 돌아오네.
분수 따라 옛 길을 지킨 선비는, 누구나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노라.
이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별 수 없지! 슬퍼한들 무엇하리오.

84) 도연명 지음, 임동석 옮김, 『임동석중국사상100·도연명집』, 동서문화사, 2010년, p.212.

85) 境界(경계), 의경(意境)라고도 한다. 고대 문학 이론상의 개념 중 하나, 주로 시어를 비평할 때 쓰인다.

할 수 있다(境非獨爲景物也, 喜怒哀樂亦人心中之一境界, 故能寫眞景物眞感情者, 謂之有境界)”면서 “감정을 말할 때도 반드시 사람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야 하며, 경관을 묘사할 때에도 사람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其言情也, 必沁人心脾, 其寫景也, 必豁人耳目)”고 했다.⁸⁶⁾ 그것은 아름다운 수양을 갖춘 고상한 지사의 아름다운 경물에 대한 반응으로, 아름다운 마음속의 아름다운 경계이다. 그러므로 「한정부」는 남녀의 애정 표현을 통해 나타낸 도연명의 고상한 의지 추구에 대한 경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엽가영은 「한정부」를 분석하기 전에 도연명의 이 賦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녀는 도연명이 자신을 위해 먼저 도덕적, 윤리적 시각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일탈한 말을 검속하고 담백한 정서를 으뜸으로 삼았다(檢逸辭而宗淡泊)”, 도연명이 쓴 「한정부」는 취지가 담백하고 겉으로는 남녀의 정을 추구한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한정부」서문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탕(流宕)한 사심(邪心)을 막아 진실로 풍간(諷諫)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抑流宕之邪心, 諒有助於諷諫)”, “아름다운 감정은 남녀 간에 발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의를 아는 것이다(發乎情, 知乎禮儀).” 이 구절에서 보듯이 엽가영은 그만큼 「한정부」를 “권고부”로 보고 있다. 소통은 “하얀 옥에도 흠집이 있으니, 바로 「한정부」이다(白璧微瑕者, 惟有「閑情」一賦)”라고 말했지만, 엽가영은 오히려 “이 賦를 쓰고 나니 도연명은 사람으로 온전해졌다(就是因爲寫了這篇賦, 陶淵明的人才完整)”라고 주장했다. 엽가영은 도연명의 「한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감정이 있어야 진정한 절의가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다. 겉으로는 구호나 교조⁸⁷⁾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감정이 없다.

(有眞感情的人才有眞的節義, 也才有兒女之情, 那些表面上只管講口號、教條的人, 對什麼都沒感情。)88)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엽가영은 「한정부」가 진정으로 “사심을 억제하고 진실로 풍간에 도움이 된다(抑流宕之邪心, 諒有助於諷諫)”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한정부」는 권고뿐 아니라 오늘날의 복잡한 현실에서도 중요한 조언과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고대 문인들이 중시하던 진실되고 소박하며, 노령에 歸隱을 추구하는 도연

86) 周勳初 지음, 중국학연구회 고대문학분과 옮김, 같은 책, p.51.

87)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것.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88) 葉嘉瑩, 『葉嘉瑩講陶淵明(六)-「閑情賦」是陶淵明的人生污點嗎?』, 名家講壇節目, 2016.

명의 성품이 엽가영의 「한정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오늘날 도연명은 감정이 충만한 시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높은 구름의 고아한 뜻에 부심하네(負雅志於高雲)”는 그 당시에는 물론 앞으로의 世間에도 “美人”를 향한 기대가 고상한 품격을 추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VI. 袁行霈 「閑情賦」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

1. “橫通與縱通”의 문학 이념

원행패는 1978년 『光明日報』에 발표한 「횡통과 종통(橫通與縱通)」에서 이렇게 말했다.

“橫通”은 장학성(章學誠) 『문서통의(文史通義)』에서 “橫通”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차용해 긍정적인 뜻을 부여하여 여러 학문의 교차를 강조한 것이다.

“縱通”은 내가 만들어낸 말로 연구 과제의 경위를 세로로 파악하고, 비록 부분적인 문제이지만,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문학사의 연구에서 한 시기, 한 왕조의 분단 연구에 만족하지 않고 상하로 소통하기를 원하며, 실령 어느 시기, 혹은 그 구체적인 문제, 한 작가, 한 작품을 연구하더라도, 전체 문학의 발전사 중에서 역사적 고찰과 판단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縱通”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학술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말한다. 문제를 연구하려면 먼저 기존 연구 성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학술의 최전선을 보고, 연구 작업의 출발점을 높여, 연구 결과가 새로운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橫通”是借用章學誠『文史通義』中“橫通”這個貶義詞，賦予它褒義，加以發揮，強調多學科交叉。

“縱通”則是我杜撰的詞，它的含義是：對研究課題的來龍去脈有縱向的把握，雖然是局部的問題，也要做歷史的、系統的考察。例如文學史的研究，不滿足於一個時期、一個朝代的分段研究，而希望上下打通；即使是研究某一時段，或者其中的一個具體問題、一個作家、一部作品，也能置之於整個文學的發展史中，做出歷史的考察與判斷。

“縱通”還有另一層意思，就是對學術史的關注和了解。研究一個問題，必先註意已有的研究成果，看到學術的前沿，將研究工作的起點提高，這樣，研究的結果才可能達到新的水平。)89)

도연명 연구에서 원행패는 시종일관(始終一貫) “橫通與縱通”의 학문적 방식을 따랐다.

그를 시인으로서뿐만 철인으로서 연구하고, 도연명 본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정치적 배경, 사상의 흐름, 문예 흐름 등을 연구하여 도연명을 중심에 두고, 종횡(縱橫)을 교차하

89) 袁行霈, 「文学、文化、文明：橫通与縱通—袁行霈教授访谈录」, 文艺研究, 2006.

며 도연명의 진실된 모습을 그려낸다.

(不僅將他作為一個詩人來研究，還將他作為一個哲人來研究；不僅研究他本人，還研究他所處的政治背景、思想潮流和文藝潮流；力圖將陶淵明放在一個中心點上，縱橫交叉地繪出一幅真實的陶淵明影像。)90)

원행패는 “縱通与橫通”이라는 문학 연구 방법론을 통해 연구된 도연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도연명을 진·송(晉宋)의 정치적 혼란함 속에 두어야만 진심되고 입체적이며 생생한 도연명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함께 이러한 전형적인 인물을 통해 중국 봉건시대 지식인들의 공통된 환상, 방황과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

(把他放到晉宋之際的政治風雲之中，才能看到一個真實的立體的活生生的陶淵明的形象，並通過這個典型看到中國封建時代一類知識分子共同的幻想、彷徨和苦悶。)91)

원행패는 문학사와 정치사가 교차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도연명의 연구 공간을 넓힌 현대 도연명 연구의 첫 번째 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한정부」에 대해 원행패가 제시한 ‘모방부’라는 관점은 후세 「한정부」 연구는 물론이고, 다른 제재(題材)에서 도연명을 연구하는데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다.

90) 袁行霽, 『陶淵明研究·跋』, 北京大學出版社, 1997, 第1版, p.409.

91) 袁行霽, 『陶淵明研究·「陶淵明與晉宋之際的政治風雲」』, 中國社會科學, 1990, 第2期, p.211.

2. 「閑情賦」 해석에 대한 고찰

오늘날 중국 문학 분야에서 도연명 연구의 선두자인 원행패의 도연명에 대한 관점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는 도연명의 작품을 그 자신의 삶의 일부로 여겼다. 그는 『陶淵明集箋注·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연명의 작품집의 정리는 내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뿐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기탁이자 솔직하고 소탈하며 유머러스한 시인과 대화하는 통로이다. 지금 나의 마음은 한편으로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쁘고 흥분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서글픔을 느낀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함께 지냈던 도연명이라는 친구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整理陶集對我來說已不僅是一項必須完成的工作，而且是一種精神寄托，是我跟那位率真、樸實、瀟灑、倔強而又不乏幽默感的詩人對話的渠，此時的心情，一方面是喜悅和輕鬆，因為實現了一個夙願；另一方面又感到悵惘，因為陶淵明這位多年來朝夕相處的朋友，或將與我分別一段時間了。)92)

원행패는 행간마다 도연명에 대한 애뜻한 정을 드러낸다. 도연명이 천여 년 전의 옛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절친한 친구인 듯, 도연명에 대한 연구 또한 그에게 있어 작업이 아닌 친구와의 대화이고 교류였다.

원행패는 도연명에 대한 문학적 접근 외에도 문사학자로서 「한정부」의 위진남북조 시대의 글쓰기 성행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그 시기의 문학은 현학(玄學)이 성행 되었을 뿐 아니라 賦문학도 등장한 시기였다. 이 시대의 작가로는 曹丕, 曹植, 揚雄, 司馬相如 등이 있다. 따라서 당시 위진시대의 시인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유행했던 “애정부”를 쓴 것이라 해도 무리한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원행패는 도연명의 「한정부」는 고아함에 대한 추구를 표현한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陶詩에는 이미 그의 사상적 추구가 충분히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부」의 문학적 장르인 賦의 문체는 변려문으로 슬프고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 양식이자 고상한 추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문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원행패는 도연명이 「한정부」를 지은 것도 당시 유행하던 문학 형식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당시 문인들이 화려한 문풍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고 도연명은 가슴이 답답했을 것이다. “採菊東籬下，悠然見南山(동쪽 울 아래서 국화꽃을 따서 들고 그윽이 앞산을 바라봐라)”93)라는 詩句는 겉으로는 밋밋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92) 袁行霽, 『陶淵明集箋註』, 中華書局, 2011, 第1版, p.468.

93) 도연명, 임동석 역, 『도연명집』, 동서문화사, 2010, p.206.

삶의 철학은 오래도록 음미되고 쇠락하지 않는다. 도연명은 분명 화려한 賦를 쓰면서, “역류지신의 마음(抑流宕之邪心)”으로 넘치지 간언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도연명의 다른 작품과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鐘嶸⁹⁴은 『詩品(시품)』 중에서 도연명은 “古今隱逸詩人之宗(고금의 은둔 시인의 조상)”라고 평가했다. 도연명의 은둔(隱逸)은 사영운(謝靈運)⁹⁵과 달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전원(田園)에 대한 동경이 뻗어 깊어 있다는 것이다. 元나라 초기 시인인 원호문(元好問)⁹⁶이 도연명에 대해 “一語天然萬古新, 豪華落盡見眞淳(한 마디의 천연만 고신, 호화롭게 떨어지는 것은 진실을 보는 것)”이라 한 평가는 “純眞”과 “自然”이 도연명 시인에 대한 공동적 평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원행패는 「한정부」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엽가영의 권고부(勸告賦)라는 주장과는 달리 「한정부」를 애정부(愛情賦)로 보았다. 그는 『陶淵明的「閑情賦」與辭賦中的愛情閑情主題』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애정부를 놓고 볼 때, 「한정부」는 전대에도 없었지만 후대에도 없는 걸작이라 할 수 있다. (暫不提「閑情賦」中有無寄托的思想, 就愛情賦而言, 「閑情賦」雖非空前亦乃絕後之傑作。) ⁹⁷

「한정부」를 걸작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엽가영과 동일하지만 원행패는 문학사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엽가영의 「한정부」 연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행패는 먼저 역대 문인들이 「한정부」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분류하면서, 예로부터 「한정부」에 대한 관점은 사랑(愛情)과 기탁(寄託)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도연명집전주(陶淵明集箋注)』에서 이런 말을 한다.

기탁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은 도연명의 다른 작품을 참고로 「한정부」라는 특정한 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이 방법은 본문의 해석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관적인 억측이 더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 제목에서 볼 때 도연명의 글쓰기의 주관적 동기는 확

94) 鐘嶸, 중국 남조 양나라 때의 학자(?~518).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났다. 특히 《주역(周易)》에 밝아 국자생(國子生)이 되었다. 후에 서중랑장(西中郎將)에까지 올랐다. 대표적 저서로 한나라부터 양나라까지의 시인 122명의 작품을 나누어 품평한 《시품(詩品)》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95) 謝靈運, 중국 남북조 시대의 시인(385~433). 송 문제(文帝) 때 모반죄를 의심받아 처형되었다.

산수시를 많이 지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96) 원호문 도연명에 대한 평가.

元好問, 중국 원나라 초기의 시인(1190~1257). 자는 유지(裕之). 호는 유산(遺山).

금조(金朝)의 사적을 채록하고 저술에 전념하였다. 저서로 《원유산선생집(元遺山先生集)》, 《중주집》 따위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97) 원행패 지음, 같은 책, p.194.

실히 넘치는 사랑의 감정에 대한 절제로 단정할 수 있다. 어쨌든 이 도연명의 절제하려는 마음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이상을 기탁설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통과 소식은 비록 서로의 평가가 다르지만 모두 이를 사랑의 작품으로 말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主寄託說者所用方法, 乃是以陶淵明其他作品爲參照, 以解釋「閑情賦」此一特定作品, 而不是從本文之詮釋中得出結論, 故難免牽強附會主觀臆測。如就其題目、傳承關係、序中之自白而言, 可以斷定陶淵明寫作此賦之主觀動機確是防閑愛情流宕。無論如何不宜將陶淵明欲防閑之情, 釋爲懷念故主之情, 或某種理想之寄託。蕭統、蘇軾雖然評價不同, 但皆視之爲言情之作, 宜也。)⁹⁸⁾

원행패는 소통이 「한정부」를 애정부로 보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 『문선』에는 「한정부」가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통은 애정부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문선』에 애정부가 별도로 분류되어 송옥(宋玉)⁹⁹⁾의 「고당부(高唐賦)」, 「신녀부(神女賦)」, 「등도자호색부(登徒子好色賦)」와 조식(曹植)¹⁰⁰⁾의 「낙신부(洛神賦)」가 수록되어 있음에도 유독 「한정부」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陶淵明集序』를 엮은 서문에서 「한정부」를 “백옥의 작은 흠(白璧微瑕)”라고 아쉬워한 것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원행패는 이에 대해 소통의 「한정부」에 대한 태도가 다른 비슷한 작품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를 도연명에 대한 소통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도연명을 추앙하여 그를 위해 문집을 편찬한 소통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도연명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 도연명에 대한 소통의 애착과 그에 대한 요구치가 너무 높았기에, 다른 이들에게 무방한 작품인 「한정부」가 ‘소박하고 자연의 사람인 도연명’에게는 흠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애정부”는 사실 매우 훌륭한 문학 소재이며, 당시 賦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매우 편리한 형식을 갖춘 문학 장르였지만, 소통의 「한정부」에 대해 “白璧微瑕”라고 한 평가로 말미암아 훗날 애정부는 賦의 작가들의 꺼리는 소재가 되었다. 이는 결국 애정부가 도연명의 「한정부」 이후 사실상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으며, 이 또한 중국 문학에 있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원행패는 『도연명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98) 袁行霈, 『陶淵明集箋註』, 中華書局, 2011, 第1版, p.316.

99) 宋玉,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의 문인(B.C.290?~B.C.222?). 작품에 「구변(九辯)」, 「초혼(招魂)」, 「고당부(高唐賦)」, 「신녀부(神女賦)」, 「등도자호색부(登徒子好色賦)」 따위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100) 曹植, 중국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인(192~232). 자는 자건(子建). 위나라 무제 조조의 아들로, 붓만 들면 곧 문장이 되었다는 「칠보시(七步詩)」의 고사(故事)는 유명하다. 시문집에 《조자건집》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백옥의 작은 흠”이라는 이 네 글자는 후대의 부 창작자들에게 꺼리는 말이 되었고, 본래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었던 ‘정’류의 부가 이로써 좌절을 만나게 되었다. 게다가 「한정부」의 탁월함은 후인들의 모방작을 많이 가져옴으로써 후대에 중요한 작품을 낳지 못했다. 이러한 부의 체제가 본래 애정을 서술하는 데 편리한 형식이 되길 바랐지만 더 이상 이런 방향에서 커다란 발전은 없었다. 결국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던 부를 매개로 한 애정의 주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으니, 이 점이 중국문학의 손실인 것이다.

(“白璧微瑕”四字使后來的賦家有了顧忌，本來可能順利發展的“情”類的賦從此受到挫折；再加上「閑情賦」之卓絕，使后人的仿作已成爲多余，所以后來沒有產生重要的作品。賦這種體裁本來有希望成爲好發愛情的方便的形式，却就沒有再在這個方向上有什么大的發展。本來可以充分發展的以賦爲載體的愛情主題，終於未能發展起來，這是中國文學的損失。)101)

원행패는 중국 문학에서 賦의 발전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陶淵明의情賦‘閑情賦’與辭賦中的愛情閑情主題」에서 이렇게 썼다.

사랑과 한정은 부에서 앞뒤로 출현하는 두 가지 주제이다.
(愛情與閑情在辭賦中是先後出現的兩種主題。)102)

이 두 가지 주제는 부(賦)에서 잇따라 나오는 것으로써, “愛情”賦는 조식의 「낙신부」를 정점으로, “閑情”賦는 도연명의 「한정부」를 정점으로 하기에 「한정부」가 문학사에서 갖는 중요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103) 즉, 「한정부」에 기탁한 사상이 있는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愛情”賦에 있어서 「한정부」는 전후의 걸작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愛情”賦와 “閑情”賦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통점을 요약하자면, 둘 다 남녀의 사랑에 관한 주제로 쓰여졌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모두 변려문의 형식을 취하였다. 차이점은 주로 부에 묘사된 인물의 감정에서 드러난다. “愛情”賦는 대다수는 사귀지 못하고 끝나지만, 결국 쌍방에 사랑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랑을 스스로 억누르지 않는다. 그러나 “閑情”賦는 이와는 다르다. 어떤 사랑은 발생하여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종종 남자 측의 짝사랑을 표현한다.

101) 원행패 지음, 학고방, 같은 책, p.193-194.

102) 袁行霈, 北京大學出版社, 같은 책, p.129.

103) 원행패 지음, 같은 책, p.186.

東漢의 張衡의 「定情賦」 이후 愛情과 閑情을 두 가지 주제로 한 賦가 출현하면서 이런 문학 장르는 유례없는 발전을 거듭했다. 사실 閑情 계열의 賦가 後漢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한나라 때 독존유술(獨尊儒術)의 예교(禮敎) 강화와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閑情계열의 경우 유가의 “아름다운 감정은 남녀간에 발생하지만 예의를 안다(發乎情, 知乎禮儀)”의 원칙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시작된 예교(禮敎) 賦用은 사랑을 틀에 놓지만, 작가를 방해하지 않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함으로써 사랑을 묘사한다. 일종의 흐름이자 도연명이 「한정부」를 만들던 시절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한정부」는 한 편의 문학적 유행에 부응하는 “모방부”라 할 수 있다.

1) 모방부

원행패는 위진남북조 이래 “賦” 소재의 발전을 언급하면서 「한정부」가 “모방부”임을 논증하고 있다. 그는 「한정부」의 序와 결말을 분석한 결과 결말은 “모방부”이고, 모방 대상은 「정정부(定情賦)」과 「정정부(靜情賦)」라고 주장한다.

처음 장형이 「정정부(定情賦)」를 지었고, 채옹은 「정정부(靜情賦)」를 지었다. 일탈한 언사를 검속하여 담백한 정서를 으뜸으로 삼았다. 시작인 경우 생각을 탕일(蕩逸)하게 펼치게 되면 끝내 올바름을 막는 데로 돌아가 버린다. 장차 이것으로써 유탕(流宕)한 사심(邪心)을 막아 진실로 풍간(諷諫)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짓는 선비들은 대대로 이어서 글을 지었는데, 모두 촉류(觸類)를 거둬서 그 글의 뜻을 넓혀 온 것이다. 나 역시 전원생활로 많이 여유로운지라, 붓에 먹을 찍어 글을 지어 보았다. 비록 문장이 묘미가 풍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글 짓는 이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았으리라.

(初, 張衡作「定情賦」, 蔡邕作「靜情賦」, 檢逸辭而宗澹泊, 始則蕩以思慮, 而終歸閑正。將以抑流宕之邪心, 諒有助於諷諫。綴文之士, 奕代繼作。並固觸類, 廣其辭義。余園閭多暇, 復染翰爲之。雖文妙不足, 庶不謬作者之意乎?)¹⁰⁴⁾

원행패는 도연명이 서문에서 최소한 「한정부」를 지은 주관적인 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점은 우리가 연구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정부·序」에서 도연명은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정부」는 모방작이며, 모방의 대상은 「定情賦」와 「靜情賦」이다. 둘째, 이 두 편의 감정은 “분방”에서 “담박함”에 이르렀고 “제멋대로 치달음”에서 “바른 데”로 돌아가며, 제멋대로 치달는 것을 억제하고 풍간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셋째, 대대로 계속 지었다는 것은 그 뜻을 넓혔다는 뜻이며, 원작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더 발휘함이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한정부」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정부」가 장형과 채옹의 원의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넷째, 「한정부」는 “농가에 거처하여 여가가 많아서” 지은 것이라 밝힌다.

(在這段「序」里, 陶淵明交代了以下幾點: 一、這是一篇仿作, 模仿的對象是「定情賦」和「靜情賦」。二、陶淵明認爲這兩篇賦的感情是由逸至澹, 由蕩至正, 其主旨是抑流宕而助諷諫。三、奕代之繼作皆廣其辭義, 也就是不離開原作的根本旨意而又有所發揮, 自己的這篇賦也是如此。而且他明白地說出這篇賦不謬張衡、蔡邕之原意。四、這篇賦是在“園閭多暇”之際寫的。)¹⁰⁵⁾

104) 본고, p.7.

위진남북조 시대에 賦는 중요한 문학 장르로 賦의 내용은 남녀의 사랑을 떠날 수 없었다. 문학장르의 하나인 賦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閑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것은 賦의 작필 방식인 것이다. 원행패는 이러한 시대적 문학조류에 영향을 받아 賦 작품을 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원행패는 “閑”의 의미로부터 「한정부」를 분석했다. 첫째, 「한정부」의 “한(閑)”자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한은 난(欄)이다. 문 가운데에 나무가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한다. 주에 “나무로 문을 막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막다(防), 한정하다(限), 닫다(閉), 바르다(正)”의 뜻으로 확대된다. 「광운(廣韻)」에서는 “한은 난(欄)이며, 막다(防), 막다(御)이다”라고 말한다. 「광아(廣雅·釋古)」에서는 “한은 바름(正)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정(正)”이 확대되어 쓰인 뜻이다. 「춘추번로(春秋繁露)·순천지도(順天之道)」에서는 “그러므로 군자는 욕심을 막고 악을 그쳐서(閑欲止惡) 마음을 안정되게 한다.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 정신을 고요하게 하며, 정신을 고요하게 하여 기를 기른다”라고 말한다. 이로써 “閑”자는 “막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¹⁰⁶⁾ 이는 바로 도연명이 “자연 임진(自然任眞)”이라는 시로 유명했지만, 그 당시 賦 작필 추세에 영향을 받아 쓰여진 것임을 말한다. 즉, 도연명이 이 賦를 쓴 것은 당시의 문화적 흐름에 부응하고, 사회적 인정을 추구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행패는 특히 도연명이 자연을 동경하였지만 벼슬길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한정부」를 도연명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쓴 모방 작품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한정부」에 대한 이해는 역사학자인 원행패의 문학사(文學史)과 문학(文學)을 결합한 연구를 통해 중국 고대문학에 대한 분석도 일가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 방식은 바로 원행패의 독창적인 “橫通與縱通”을 정립으로부터 나온다. “橫通與縱通”은 고전 문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105) 원행패 지음, 같은 책, 학고방, p.180.

106) 위의 책, p.181.

2) 작품 평가의 개방성

원행패는 賦의 제목에서 강제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여 “충군 지정(忠君之情)”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정(正情)”의 “정(正)”이라는 글자도 충군(忠君)의 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정부」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구는 사랑을 표현하는 주제에 무한한 낭만과 동경을 나타내지만, 강제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며, 앞뒤 연결도 주제와 잘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방하게 흐르는 감정이 결국 바름으로 돌아오는 부의 체제는 한위(漢魏) 이후 문인들의 관용적인 방식이었다.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기탁함이 들어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閑邪”의 “邪” 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충군(忠君)의 “분방하게 흐르는 정(情)”이란 뜻인가? “지욕(止欲)”의 “욕(欲)” 자를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충군의 욕정이 마땅히 “그친다(止)”는 뜻인가? “정정(正情)”의 “정(正)” 자를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충군의 정이 “바르게 돌아온다”는 뜻인가?¹⁰⁷⁾ 결국 도연명 이전의 부에 정치적 기탁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도연명의 「한정부」에도 정치적 기탁함이 있다고 말할 만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연명 자신도 이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동류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선례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부」는 도연명의 정치적 기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도연명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다른 작품에서도 이렇게 정치적 기탁을 내포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연명의 작품에서만 추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하지 않으며, 이론적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 편의 작품을 감상할 때 독자는 당연히 자신의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심경에 따라 도연명이 쓴 “바람(願)”을 자신이 원하는 “바람”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한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추측 대신, 「한정부」 자체에서 출발하여 도연명이 전현(前賢)의 부를 읽은 후, 興이 나서 모방한 작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른 작품들을 참고해 보면, 「한정부」는 도연명이 지닌 사랑에 대한 욕망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고상한 품성을 지닌 도연명의 인간적인 정취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작품이다.

원행패는 또한 도연명의 「한정부」에 나오는 “십원(十願)”이 육조시대(六朝時代) 변

107) 원행패 지음, 같은 책, 학고방, p.183.

려문의 전형적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고, 포장(鋪張)을 특징으로 삼아 변려(駢麗)로 폭을 넓혔다고 설명한다. 「한정부」에 나오는 “십원” 구절은 한결같이 정이 깊고 통쾌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화려함 속에서 진실한 감정을 드러내며, 다소 순진하고 치정적이지만 과하지 않다. 도연명의 진지하고 뜨거운 사랑의 체험과 시들지 않은 도연명의 모습을 보여 준다. 張衡의 「定情賦」에서 “얼굴의 고운 화장이 되고 싶건만, 먼지를 털어내어도 빛이 나지 않음을 슬퍼한다(思在面爲鉛華兮, 患離塵而無光)”¹⁰⁸⁾라고 썼고, 蔡邕의 「靜情賦」는 “입의 피리 소리가 되고 싶건만, 홀로 울리는 소리 차마 들을 수 없음을 슬퍼한다(思在口而爲簧鳴, 哀聲獨不敢聆)¹⁰⁹⁾”라고 썼으며, 應瑒의 「正情賦」에 “님 앞의 명경이 되고 싶건만, 세월의 변화 속에서 옛것이 될 것임을 슬퍼한다(思在前爲明鏡, 哀既往於替)”¹¹⁰⁾라고 쓴 것을 바로 전형적인 애정부의 작품들로, 이러한 작품들은 도연명의 감상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거기에 그의 문학적 내력까지 더하면서 그가 자연히 앞에 문인들을 능가하는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을 모두 비교해보면, 도연명의 「한정부」는 비록 모방 작품이긴 하지만 전인들의 작품을 뛰어넘는다. 즉, 위의 “십원” 속에 그의 깊은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 화려함 속에 진정성이 드러나고, 심지어 조금은 천진하고 어리석은 느낌마저 든다. 여성을 희롱하는 느낌은 조금도 없다. 만약 진실함이 없이 뜨겁기만 한 사랑이라면 어찌 붓끝에서 이와 같은 감정을 전하는 글귀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를 통해 도연명의 메마르지 않은 감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소통은 바로 「한정부」의 이러한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相比之下, 陶淵明的「閑情賦」雖然是模仿之作, 却大有超過前人之處。這段文字可謂一往情深, 淋漓盡致。在華艷中流露出真情, 帶有几分天真, 几分痴呆, 却毫无玩弄女性的意味。試想, 如无真切而熾熱的愛情體驗, 筆下豈能有如此傳情之辭句? 由此可以看到淵明并不枯稿的一面。昭明之所訊, 正是此賦價值之所在。) ¹¹¹⁾

소통은 「한정부」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컸지만, 원행패는 소통의 비아냥이 바로 「한정부」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애정부를 놓고 볼 때, 「한정부」는 전대에도 없었지만 후대에도 없는 절작이라 할 수 있다.

108) 원행패 지음, 같은 책, 학고방, p.182.

109) 위의 책, p.185.

110) 위의 책, p.185.

111) 위의 책, p.186.

(就愛情賦而言, 「閑情賦」雖非空前亦乃絕后之作也。)112)

곧, 소통이 비꼬는 것은 품행이 고상한 전원시의 원조인 도연명이 너무 화려하게 쓰여진 「한정부」는 “소박하고 자연스럽다(質樸自然)”라는 도연명의 시풍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행패는 도연명의 사상과 작품이 반드시 그렇게 단순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도연명의 다른 작품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112) 원행패 지음, 같은 책, 학고방, p.194.

VII. 결론

지금까지 도연명에 대한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대부분 陶詩와 도연명의 사상에 대한 연구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사랑을 소재로 한 유일하고, 賦 자체가 독특한 작품인 「한정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 엽가영과 원행패의 「한정부」 연구는 현대 학자들의 도연명 연구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엽가영은 “興發感動”의 문학 이념으로 「한정부」를 분석하여, 도연명이 “負雅志於高雲” 여인에 대한 욕구를 독자들의 “感動”으로 표현하고 있어 단순한 사랑의 賦가 아니라 “抑流宕之邪心”의 “권고부”임을 보여줬다. 반면 원행패의 “橫通與縱通”이라는 이론적 분석법을 통해 「한정부」는 도연명이 위진남북조 변체문의 흐름을 따라 지은 일종의 “애정부”에 불과하며, 그래서 「한정부」가 “모방부”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고는 두 고전문학 연구자의 연구 방법에 따라 「한정부」를 다르게 해석하였다. 그럼에도 도연명의 「한정부」는 미인과 사랑에 대한 향수를 표현한 “모방부”로 보거나 아름다운 이상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권고부” 보거나 이 모두가 「한정부」의 문학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정부」를 볼 때도 단순히 겉만 화려하고 웅장한 변려문 형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글의 깊은 뜻을 모아 독자의 “感動”을 불러일으켜서 도연명이 글로 표현하고 싶은 “負雅志於高雲”의 이상적 욕구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정부」의 내용은 미인을 향한 사랑을 적은 것이지만, 시인의 잠재의식, 마음과 감정에 깊이 내포된 본질을 무의식중에 표출한 독특한 “언외지의(言外之意)”를 형성하고 있다. 이 독특한 “언외지의”의 「한정부」는 詩보다 연상이 풍부하다.

엽가영과 원행패는 비록 같은 문학가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고대 문학을 접할 정도로 문학적 저력이 깊지만, 훗날 서로 다른 생활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고대 문학에 대한 연구는 “한 나무의 뿌리에서 두 가지(一根二枝)”의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하나의 뿌리(一根)”, 즉 현대 학자의 고대 문학에 대한 연구, “두 가지(二枝)”는 즉 동양 전통문학 연구와 서양 문학 연구 이론을 결합한 연구 방식이다. 바로 두 문학가의 고대문학 연구의 몰두로 몰락던 중국 고대 문학이 20세기부터 새로운 연구의 싹이 돌아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시대 진정한 중국 고대 문학 연구의 기초를 놓을 학자이며, 진정한 고대 문학의 현세에서의 발안자이자 전파자이다.

그 중 엽가영은 서양의 “기호학(符號學)”¹¹³⁾ 이론을 인용하여 작품이 가진 잠재된 의미를 모두 詩語를 통해 전달하는데, 언어 기호에는 이런 능력이 잠재돼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자가 작품에서 잠재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사용하는 기호들을 통해 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¹⁴⁾ 엽가영은 현대 서양 문학 비평이론을 중국 전통 시론과 융합해 미인을 주제로 한 「한정부」를 “권고(勸告)”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도연명이 「한정부」를 지은 것은 남녀의 사사로운 정(私情)이 아니라 문체가 추구하는 借喻를 통해 고아함을 표현한 것이라 주장한다. 또 엽가영은 도연명이 「한정부」의 “負雅志於高雲”은 여인에 대한 추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는 천박한 현상으로 고상한 본질을 추구하라는 권유로 「한정부」의 “권고(勸告)”가 있다고 여겼다. 詩詞 평론한 작품에서도 보듯이 엽가영은 중국의 詩詞에는 시인의 실제 생활 속 체험은 아니더라도 감정 표현의 진정성과 감정의 농도는 여전히 진실로 드러나는 잠재의식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詩詞의 내용은 여인에 대한 사랑이지만, 시인의 잠재의식, 마음, 감정의 깊은 본질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言外之意”가 된 것이다.

원행패가 「한정부」를 “모방부”로 보는 근거는 도연명이 처한 사회적 배경 때문이다. 그의 문학 이념은 『陶淵明研究·跋』에 잘 응용되었다.

...나중에 내가 도연명을 연구 대상으로 정했을 때 매우 자연스럽게 사람과 작품의 양 방면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의 작품을 중시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인품을 중시했고, 그의 작품에 대한 평론을 중시했을 뿐 아니라 그의 생애에 대한 고증을 중시했다. 그를 한 사람의 시인으로 간주하여 연구했을 뿐 아니라 그를 한 사람의 철인으로 간주하여 연구하였다. 그 사람 본인을 연구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처한 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조류, 그리고 문예적 조류를 연구하였다. 바야흐로 도연명을 중심점에 두려고 하면서도 한 폭의 진실한 도연명의 초상화를 종횡으로 교차시켜 그려내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종합적 연구방법이 도연명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적합하다고 생각한다.¹¹⁵⁾

(...后來当我將陶淵明当作研究對象時，便很自然地兼顧人和作品兩方面：既重視其作品，也重視其人品；既重視其作品的評論，也重視其生平的考証；不僅將他作為一位詩人來研究，還將他作為一位哲人來研究；不僅研究他本人，還研究他所處的政治背景、思想潮流和文藝潮流；力圖將陶淵明放到一个

113) 기호학(符號學), 소쉬르나 피어스(p.eirce, C. S.)의 이론을 계승하여 기호 및 기호로서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 문화 전체를 기호 체계로 보고 그 발생을 연구하는 학문. 문학 작품, 음악, 영화, 복장,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114) 毛勤勇, 李永紅, 「試論叶嘉莹的文學批評理論」, 无錫教育學院學報, 2000.

115) 원행패 지음, 같은 책, 학고방, p.532-533.

中心点上, 縱橫交叉地繪出一幅陶淵明的影像。我感到, 這種綜合研究的方法, 用在陶淵明身上特別合適。)116)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원행패는 연구 대상을 교차 연구의 중심점에 두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도연명의 실제 영상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橫通與縱通”의 문학 이념은 도연명을 분석할 때, 도연명의 철학 사상, 문예 사상, 도연명이 처한 정치 배경, 문학 배경, 그리고 도연명과 동시대의 작가, 후대 작가의 詩歌 예술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점으로부터 하나의 사실적인 도연명의 영상을 그려낸다. 이런 연구 방법에서 얻어낸 결론도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興發感動”과 “橫通與縱通”의 문학적 이념을 통해 향후 고전 문학 연구에서 단순히 작품의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분석과 작품 자체의 “感發”의 힘을 통해 작품과 저자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을 제안한다. “興發感動”은 시문 자체의 진정성을 통해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독자들의 내면적 공감을 이끌어내며, 시사의 매력으로 독자의 생명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橫通與縱通”은 시인의 창작 과정을 사회 형태와 결합해 문학 발전의 역사를 보다 넓은 배경에서 관찰하고 연구함으로써 시사에 담긴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興發感動”과 “橫通與縱通”을 결합하여 고전 문학 해석에 “作者-作品-讀者”의 패턴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저자는 독자에게 감성과 지성을 전달하고, 독자는 작품에서 연상을 일으켜 작품의 원뜻을 이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독자 자신의 생명歷程에 응용함으로써 고전이 진정 인간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詩詞歌賦는 사랑을 속삭이는 도구이자 문학적 수준의 전시 수단인 동시에 바쁜 현대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도구이다. 그것은 개인의 수양 및 자기 가치의 실현에 일정한 촉진 작용을 하여 그 속에 우리의 현대 생활을 녹여 생명의 자양분이 되게 한다. 사람의 생명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불러일으켜 아름다운 이상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엽가영과 원행패는 이 점에 착안하여 도연명의 「한정부」를 각각 “興發感動”과 “橫通與縱通”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엽가영은 단순히 학술적 의미 연구 가치에 그치지 않고, 문학 작품을 통해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고전 연구에 보다 의미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116) 袁行霈, 『陶淵明研究』, 같은 책, p.408-409.

【參考文獻】

1. 작품류

- 원행패 지음, 박종혁·김종선·정환중·장창호·박영순·박봉순·조희만·이규일·진준화 옮김, 『도연명 연구』, 학고방, 2017.
- 권호중, 성기욱 저, 『중국 고시 감상 시경 - 도연명』, 경상대학교출판부, 2012.
- 우현민 역, 『도연명 시전집 (상.하)』, 서문당, 1979.
- 왕국유 저, 조성천 역, 『인간사화』, 지식을만드는지식, 2016.
- 장기근, 『도연명: 陶淵明』, 석필, 2006.
- 장기근, 『도연명 신역』, 명문당, 2002.
- 장기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 田園詩人 도연명』, 서울:서원, 2004.
- 차주환, 『도연명 전집(한역)』,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도연명, 임동석 역, 『도연명집』, 동서문화사, 2010.
- [晋]陶淵明, [清]陶澍 集注, 龔斌 点校, 『陶淵明全集』, 上海古籍出版社, 2015.
- [南朝·梁]蕭統 著, 『文選』, 中華書局, 2008.
- [宋]蘇軾 撰, 白石 点校, 『東坡題跋』,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6.
- [梁]鐘嶸 著, 杜天縻 注, 『廣注詩品』, 世界書局, 1936.
- [梁]鐘嶸 著, 曹旭 集注, 『詩品集』, 上海古籍出版社, 1994.
- [漢]毛亨 傳[漢]鄭玄 箋[唐]孔穎達 疏 『十三經注疏·毛詩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
- [漢]鄭玄 注, [唐]賈公彥 疏, 『十三經注疏·周禮注疏』, 北京大學出版社, 1999.
- [南北朝]劉勰 著, [清]黃叔琳 注, 『文心雕龍』, 上海古籍出版社, 2015.
- [清]王國維, 『人間詞話·匯編匯校匯評』, 上海三聯出版社, 2013.
- [清]張自烈, 『箋注陶淵明集』, 明崇禎刻本, 國家圖書館藏.
- [清]方東樹, 『昭昧詹言·卷四·陶公』, 廣文書局印行, 中華民國五十一年八月初版.
- [清]劉光蕢, 『陶淵明詩文彙評』, 台灣中華書局(編)台北:中華書局, 1974.
- 魯迅, 『魯迅全集』, 人民文學出版社, 1981.
- 錢鐘書, 『管錐編』, 蘭馨室書齋, 2000.
- 武懷軍, 『「閑情賦」源流概說』, 商務印書館, 2018.
- 葉嘉瑩, 『迦陵論詩叢稿』, 中華書局, 2007.

- 葉嘉瑩, 『迦陵論詞叢稿』, 中華書局, 2007.
- 葉嘉瑩, 『叶嘉瑩說陶淵明飲酒及擬古詩』, 中華書局, 2007.
- 葉嘉瑩, 『叶嘉瑩說漢魏六朝詩』, 中華書局, 2007.
- 葉嘉瑩, 『好詩共欣賞·叶嘉瑩說陶淵明杜甫李商隱三家詩』, 中華書局, 2007.
- 葉嘉瑩, 『我的詩詞道路』, 中華書局, 2007.
- 葉嘉瑩, 『人間詞話七講』, 北京大學出版社, 2014.
- 袁行霽, 『陶淵明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9.
- 袁行霽, 『中國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2014.
- 袁行霽, 『陶淵明集箋注』, 中華書局, 2020.
- 袁行霽, 『中國傳統文化百部經典·陶淵明集』, 國家圖書館出版社, 2020.
- 袁行霽, 『袁行霽文集』, 山東人民出版社, 2020.
- 袁行霽, 『中國文學史綱·魏晉南北朝 隋唐五代文學』, 北京大學出版社, 2016.

2. 학술간행물

- 김 선, 「현대 중국 여성 葉嘉瑩의 苦難과 詩詞창작」, 중국학연구, 2009.
- 김 선, 「세계적인 학자 叶嘉瑩의 고전 텍스트에 대한 해독과 대중화 -唐宋詞를 중심으로」,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 신영대, 「陶淵明 詩의 思想性 研究」, 제주대학교, 1999.
- 장용상, 「샬린저와 벨로우의 작품과 도연명의 작품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 최용혁, 「도연명(陶淵明)의 「한정부(閑情賦)」고」, 中國學研究, 1985.
- 袁行霽, 「評介『陶淵明詩文匯評』」,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61.
- 袁行霽, 「陶淵明的『閑情賦』与辭賦中的愛情閑情主題」,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2.
- 袁行霽, 「陶淵明晉宋之際的政治風雲」, 『中國社會科學』, 1990.
- 袁行霽, 「文學,文化,文明：橫通與縱通——袁行霽教授訪談錄」, 「文藝研究」, 2006.
- 毛勤勇,李永紅, 「試論葉嘉瑩的文學批評理論」, 無錫教育學院學報, 2000.
- 振甫, 「發乎情 止乎禮義——讀陶淵明『閑情賦』」, 『名作欣賞』, 1984.
- 徐志嘯, 「葉嘉瑩對傳統詩學研究的貢獻」, 『中國文化研究』, 2007.

- 鐘書林, 「橫通與縱通——論袁行霽先生的陶淵明研究」, 天中學刊, 2015.
- 李劍鋒, 「陶淵明〈閑情賦〉的歷代接受與闡釋」, 中國人民大學學報, 2021.
- 朱興和, 「叶嘉瑩“興發感動”說的誕生、邏輯層次及生命詩學意味」, 古代文學理論研究. 2020.
- 嚴小沐, 「先生叶嘉瑩：穿裙子的“士”」, 時代郵刊. 2020.
- 龍珍華, 「生命的“感發”——論叶嘉瑩古典詩歌研究特色」, 華中學術. 2016.

3. 학위논문

- 朱巧云, 「跨文化視野中的叶嘉瑩詩學研究」, 暨南大學 2004.
- 張春華, 「叶嘉瑩中國古典詩詞詮釋體系研究」, 山東大學 2009.
- 趙郁婷, 「興發感動的生命詩學——葉嘉瑩詩歌理論批評研究」,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系, 碩士學位論文, 2019.
- 陳玉波, 「叶嘉瑩詞學批評方法研究」, 哲學與人文科學, 2020.
- 韓璐楠, 「陶淵明〈閑情賦〉接受研究」, 揚州大學, 2020.

【中文摘要】

陶淵明作為“古今隱逸詩人之宗”，對後世的影響絕對是首屈一指，後世對陶淵明的研究也一直沒有間斷過。但是這些研究大多數是關於陶詩或者陶淵明思想的，特別是對陶淵明的田園詩、飲酒詩、詠懷詩的研究更是數不勝數，

其實在陶淵明的作品中，有一篇作品非常的特別，無論是題材還是形式語言等多方面來看都區別於陶淵明的其他作品，那就是以愛情為主題寫成的“賦”－『閑情賦』。這篇用魏晉南北朝時期盛行的駢體文寫成的“愛情”賦，成為了陶淵明作品中最受爭議的部分，好的評價與壞的評價爭論不休，對『閑情賦』的爭議主要是此賦是否是陶淵明對愛情的追求，或者是以“愛情”為體裁，陶淵明借喻對美好理想的追求。『閑情賦』中出現的“愛情”話題，也是陶淵明僅有的以愛情為體裁的作品。

對『閑情賦』的評價主要分為，否定『閑情賦』文學價值的“愛情說”，和肯定『閑情賦』文學價值的“比興說”。

在『閑情賦』的眾多評論者中，主張“愛情說”的蕭統對後世的影響巨大。作為第一位為陶淵明編纂詩集的崇拜者，他在『陶淵明集序』中這樣寫道：“余愛嗜其文，不能釋手；尚想其德，恨不同時。故更加搜求，粗為區目。”這足以見證蕭統對陶淵明的喜愛甚多，但蕭統對陶淵明的『閑情賦』採用的是全盤否定的主張。同樣是在『陶淵明集序』中，蕭統對『閑情賦』的評價卻是這樣的。“白璧微瑕者，惟在『閑情』一賦。楊雄所謂勸百諷一者，卒無諷諫，何必搖其筆端？惜哉，無是可也！”其中的“白璧微瑕”更是對後世“賦”這種文體的延續與創造造成了很大的不良影響。作為一個崇拜者，對陶淵明的『閑情賦』及其他作品的評價竟是這樣的天壤之別，實在是讓人好奇，到底『閑情賦』是為什麼會被蕭統稱為“白璧微瑕”呢？

主張“比興說”的宋代大文豪蘇軾，將蕭統的評價認為是“小而強做解事者”。蘇軾對『閑情賦』的評價與蕭統截然不同。“淵明『閑情賦』，正所謂『國風』‘好色而不淫’，正使不及『周南』，與屈宋所陳何異？而統乃譏之，此乃小兒強作解事者。”同樣是影響後世深淵的文學家，對同一個作品卻有如此之大的差別，這讓筆者對『閑情賦』產生了濃厚的研究興趣。

其實，不只是古代人對『閑情賦』有研究，現代的國學大師葉嘉瑩與袁行霈等人也對『閑情賦』的文學價值有自己的獨特見解。正如國學大師、詩詞大家葉嘉瑩所說的那樣“就是因為寫了這篇賦以後，陶淵明的人才完整”，對『閑情賦』的研究可以讓我們更加深入地了解陶淵明，了解除了淳樸自然的陶詩和淡泊隱逸的思想外，陶淵明在其它人性方面的具體體現。同樣作為現代國學大師，史學家的袁行霈更是認為『閑情賦』是“雖非空前亦乃絕后之佳作”。這也

說明對『閑情賦』的研究可以讓現代人更全面、更深入地了解“自然、淳樸”的陶淵明，了解陶淵明的另一面，所以『閑情賦』在當今的古典文學研究中仍然具有很高的文學價值。

除了對『閑情賦』具有強烈的好奇心以外，本論文選擇葉嘉瑩與袁行霽這兩位現代國學大師作為研究對象，也是有充分的理由與明確的目的的。

作為現代中國國學研究領域的領軍人，葉嘉瑩和袁行霽分別代表了國學研究的兩種方向。葉嘉瑩深受西方文學批評影響，學術研究領域非常廣泛，在古典詩詞批評方面成績尤其卓越。她的詩歌批評既有傳統的方法又有現代的意識，評賞精微獨到，議論擊肌入理。她將自己對古典詩歌的深刻體悟和對西方理論的遺貌取神兩種手段恰到好處地結合在一起。在批評實踐中，無論是傳統的文學理論批評方式還是西方的新旧文學批評理論，她“都僅只是擇其所需而取之，然后再將之加以個人之融會結合的運用”。

葉嘉瑩採用“中西化通”的批評策略，形成了自己獨特的治學理念“興發感動”。葉嘉瑩運用“興發感動”的治學理念，總能將晦澀難懂的古典文學分析得深入透徹，用簡單易懂的現代白話解釋地清晰明了。所以“興發感動”的理論，在現代人對古典文學的研究中起到了很大的融會貫通作用。本文希望通過葉嘉瑩對『閑情賦』的評論，可以總結出“興發感動”理論對古典文學在現代社會的研究中所發揮的作用。

袁行霽一位文化積淀深厚，學術著作頗丰，在自己的領域中受人敬仰的大家，對中國古典詩歌的研究獨到且精深，他從詩歌語言、意象、意境及詩人風格這几个方面分析和鑒賞詩歌，全面而系統，為我們分析和鑒賞古詩詞提供了借鑒。

袁行霽治學，還注重多學科交叉融合的理念與方法，提出了自己獨特的治學理念“橫通與縱通”。“橫通”就是指將多個學科交叉研究，“縱通”就是指把握研究對象的來龍去脈。例如，在詩歌藝術探索中，與昂興平認為，就一个詩人來說，人格、氣質、心理、閱歷、教養、師承等都起作用；就一个時代來說，政治、哲學、繪畫、音樂、民俗等都有影響。只有把詩人詩作放在廣闊的時代背景中，才有可能看到藝術的奧妙。特別是在陶淵明研究中，他不局限于文學史，還從魏晉思想史、哲學史、政治史甚至藝術史、社會風俗史中去討論，全面、立體地揭示陶淵明的思想、個性與藝術風格。而袁行霽對『閑情賦』的研究也是陶淵明衆多研究中十分獨特的存在，可以讓現代人不僅了解陶淵明的文學藝術造詣，還可以了解陶淵明所處的時代背景。

[ABSTRACT]

Tao Yuanming, as the "model of ancient and modern recluse poets", his influence on the later generations is absolutely second to none, and the research on Tao Yuanming has never been interrupted in later generations. However, most of these studies are about Tao's poems or Tao Yuanming's thoughts, especially the studies of Tao Yuanming's pastoral poems, drinking poems and intone poems are numerous.

In fact, among Tao Yuanming's many works, one of them is very special. It is different from Tao Yuanming's other works in terms of subject matter and formal language, and that is an "ode" with love as the main topic -- "Ode to Leisure". This "love" ode, written in the parallel style that was prevalent during the Wei, Jin and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has becom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of Tao's works. The evaluation is polarized, the good evaluation and the bad evaluation argue endlessly. The controversies about "Ode to Leisure" mainly focus on whether this ode is Tao Yuanming's pursuit of love or whether it takes "love" as its genre, which Tao Yuanming uses as a metaphor for the pursuit of beautiful ideals. The topic of "love" appears in "Ode to Leisure", which is also the only one of Tao Yuanming's works that takes love as its genre.

The evaluation of "Ode to Leisure" can be divided into "love theory" which negates the literary value of "Ode to Leisure" and "buesching theory" which affirms the literary value of "Ode to Leisure".

Among the many critics of "Ode to Leisure", Xiao Tong, who advocated "love theory", had a great influence on later generations. As the first admirer to compile an anthology of Tao Yuanming's poems, he wrote in the "Tao Yuanming Collection preface": "I have always liked his poems and prose, I can't put them down, I admire his moral character greatly, and I regret that I did not live in the same era with him. So I collected and corrected his works and simply made a collection of poems." This is enough to witness that Xiao Tong loved Tao Yuanming a lot, but Xiao Tong adopts a totally negative attitude towards Tao Yuanming's "Ode to

Leisure". Also in the preface to the Collection of Tao Yuanming, Xiao Tong commented that "among many excellent works, only one of them is defective. Although the title contains the suggestion of satire and admonitions, there is no satire and admonitions in the text. It is a pity that this work has no redeeming points!" Among them, the "white wall with slight flaws" has caused a great bad influence on the continuation and creation of the "ode" style in later generations. As an admirer of Tao Yuanming's Ode to the Feeling of Leisure and other works, his comments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reason why "Xian Qing Fu" was collectively referred to by Xiao Tong as the "white wall with slight flaws" is really curious.

Su Shi, a great writer in the Song Dynasty who advocated "buesching theory", regarded Xiao Tong's evaluation as "he did not understand the author's intention but forcibly explained." Su Shi's evaluation of "Ode to Leisur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Xiao Tong. He believes that "Tao Yuanming's "Ode to Leisure" is like the "Lecherous but not lewd" in "National Customs". Even if it is not comparable to the national style, it is not inferior to QuSong's poems. However, Xiao Tong satirized it in this way, because he did not understand the author's intention but forced interpretation." The same writer who influenced the abyss of later generations has such a big difference in the same work, which makes the author have a strong research interest in "Ode to Leisure".

In fact, not only the ancients did research on "Ode to Leisure", modern Chinese masters Ye Jiaying and Yuan Xingpei also have their own unique views on the literary value of "Ode to Leisure". As Ye Jiaying, a master of Chinese studies and poetry, said, "Tao Yuanming's life is complete only after writing this ode." The study of "Ode to Leisure" can give us a deeper understanding of Tao Yuanming. We can learn about Tao Yuanming's concrete manifestations in other aspects of human nature, in addition to the simple and natural poetry of Tao Yuanming and his indifferent and secluded thoughts. Also as a master of modern Chinese studies, historian Yuan Xingpei believes that "Ode to Leisure" is "an unprecedented masterpiece." These evaluations show that the study of "Xian Qing Fu" can give modern people a more comprehensive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and simple" Tao Yuanming, and understand the other side of Tao Yuanming's human nature. Therefore, "Xian Qing Fu" still has a high literary value in the current classical literature research.

In addition to having a strong curiosity about "Xian Qing Fu", this thesis chooses Ye Jiaying and Yuan Xingpei, two modern Chinese masters as the research objects, with sufficient reasons and clear goals.

As leaders in the field of modern Chinese studies of Sinology, Ye Jiaying and Yuan Xingpei respectively represent two directions of studies of Sinology. Ye Jiaying is deeply influenced by Western literary criticism, so she has a wide range of academic research fields, especially in classical poetry criticism. Her poetry criticism has both traditional methods and modern consciousness. Her criticism is subtle and unique, and her analysis is very meticulous. She combined her profound understanding of classical poetry and the two methods of discarding the similarity and choosing the similarity in Western theories. In the practice of criticism, whether it is the traditional literary theory criticism method or the old and new literary criticism theories in the West, she "only adopts the theories she needs, and then combines them with personal integration."

Ye Jiaying adopts the critical strategy of "Integrating Chinese and Western" to form her own unique academic philosophy "when the association triggered by the image of poetry touches the heart, it naturally reveals the emotion". Through the use of academic philosophy of "when the association triggered by the image of poetry touches the heart, it naturally reveals the emotion", Ye Jiaying can always analyze the obscure and incomprehensible classical literature thoroughly, and explain clearly in simple and easy-to-understand modern vernacular. Therefore, the theory of "the feeling of emotion that is naturally revealed when the association triggered by the image of poetry touches the heart" has played a great role in the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by modern people. This article hopes that through Ye Jiaying's comment on "Ode to Leisure", we can summarize the role of the theory of "the touching feelings that are naturally revealed when the association triggered by the image of poetry touches the heart" on the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in modern society.

Yuan Xingpei is a great person with a profound cultural heritage, a wealth of academic works, and he is admired in his own field. His research on Chinese classical poetry is unique and profound. He analyzes and appreciates poetry from the aspects of poetic language, imagery, artistic conception and poet style, an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provides us with a reference for analyzing and appreciating ancient poems.

In addition, Yuan Xingpei also paid attention to the idea and method of multi-discipline integration when he was doing academic research, and put forward his own unique academic philosophy "horizontal and vertical". "Horizontal" refers to cross-study of multiple disciplines, and "vertical" refers to grasping the ins and outs of the research object. For example, in the exploration of poetry art, Yuan Xingpei believes that for a poet, personality, temperament, psychology, experience, education, and mentorship all play a role. For an era, politics, philosophy, painting, music, folklore, etc. all have influence. Only when the poets' poems are placed in the background of the era, can we see the mystery of art.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researching Tao Yuanming, Yuan Xingpei is not limited to the history of literature, but also discusses from the history of Weijin thought, philosophy, politics, and even art and social customs, in order to reveal Tao Yuanming's comprehensively and three-dimensionally. Thought, personality and artistic style. Yuan Xingpei's research on "Ode to Leisure" is also very unique among Tao Yuanming's many studies. His research can make modern people not only have a deeper insight into Tao Yuanming's literary and artistic attainments, but als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ao Yuanming's era.